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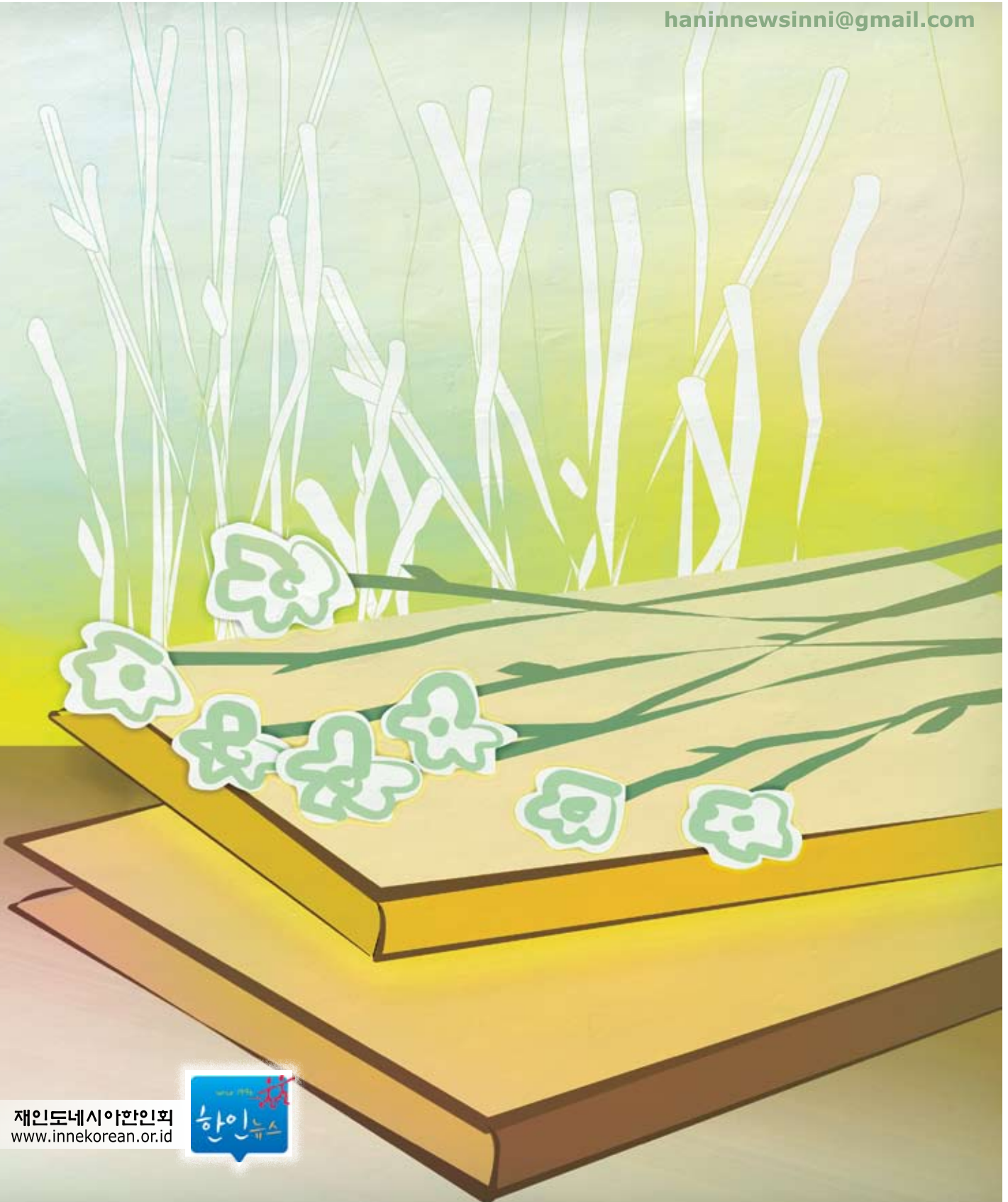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9

2012 VOL.195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PT. HTM INDONESIA (KMK GROUP)
World Class Rubber Boot Manufacturing



환경과 인간을 존중하는 기업



Lean System



Green Factory 16/08/2012



Customer Satisfaction

Address : Jl. Raya Serang Km. 8 Telesonic
RT.01/RW.01 Kadu Jaya, Curug – Tangerang

Telp. 021 - 59311736
Fax. 021 - 59311766



남다른 생각의 스케일로 대한민국의 영역을 넓히고 개신 당신을 위해
대한항공도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서비스의 생각, 네트워크의 생각,
편안함에 대한 생각 - 당신의 기대까지도 뛰어넘는 서비스로 더 크게 모시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PRIME NUSANTARA TOUR SERVICE

E-mail : michelle.lee@primef.co.id

**SUKA
KOREA**
Super Unforgettable Kind Amazing

프라임 투어의 한국패키지 브랜드 명칭
'좋아하다'라는 뜻의 인도네시아어 SUKA를
멋지고 잊을 수 없고 진절하며 굉장한 한국이라고 풀이함.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거듭 납니다.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가 <프라임 투어>로 상호를 변경 하고
더욱 적극적인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가장 고급스럽고 세심하게 전파합니다.

- ▶ 문화유산 패키지: 유형 및 무형 문화재 중심 패키지
- ▶ 한류 패키지: 열정적인 공연물 중심 패키지
- ▶ 의료 패키지: 발달된 의료상품 중심 패키지
- ▶ 쇼핑 패키지: 면세점부터 시장까지 쇼핑 중심 패키지
- ▶ 기업 패키지: 기업의 요청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사 중심 패키지



프라임 투어 서비스

- ▶ 인도네시아 여행 서비스
- ▶ 주요 지역 호텔 및 차량 예약
- ▶ 기업 및 단체 컨퍼런스 개최
- ▶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 ▶ 교민을 위한 가족초청 프로그램
(자카르타 친지방문과 유명여행지를 결합한 여행)
- ▶ Garuda항공 에어텔 예약
 - ~ 자카르타 출장고객
 - ~ 인도네시아 여행객.
 - ~ 인도네시아경유 호주여행 고객



KOREA INDONESIA WEEK

한·인니 문화 주간 행사
2012년 10월 3일 ~ 7일 (5일간)
따만앙그렉 쇼핑몰



- **K-POP Festival**
3rd Oct - 7th Oct. 2012
- **Korea Winter Travel Fair**
3rd Oct - 7th Oct. 2012
- **K-Food Festival**
6th Oct. 2012
- **Korean Film Festival**
3rd Oct - 9th Oct. 2012
- **Taekwondo Performance**
6th Oct - 7th Oct. 2012
- **Korean Culture Performance**
5th Oct - 6th Oct. 2012
- *Special Performance :
4 Oct. 2012 - 18 : 30 - Balai Kartini

3rd Oct ~ 7th Oct. 2012
Main Atrium Mal Taman Anggrek

1 노름마치	2 라스트포원	3 하용부	4 EDx2 무용단
			
Noreum Machi	Last for One	Ha Yong - Bu	EDx2 Dance Company

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인한 마약사건 연루 주의

Tel : 021-2992-303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우리 국민이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마약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이태원 등지의 외국인 마약조직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접근하여 마약의 운반 및 밀수를 의뢰하거나, 마약을 숨긴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운반을 부탁받는 물건은 가방뿐만 아니라 장난감, 책 등 의외의 물건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물건 내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물건을 받아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고 해외교도소에 장기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 최근 사례

마약은닉 가방 운반 사례 : 지난 6월, 캐나다 우리 유학생 1명이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친구로부터 가방(마약이 은닉) 운반을 부탁받고, 이를 운반하던 중 출국심사 과정에서 현지 공항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약인형 운반 사례 : 최근, 우리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케냐인과 나이지리아인의 부탁을 받고 목각인형 3개(필로폰 내장)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현지 마약경찰에 의해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 절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인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파푸아지역 2단계)

우리 외교통상부는 8.10(금)부로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치안상황 및 주요 국가들의 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 사유 파푸아주 지역 분리독립세력의 활동으로 인한 치안상황 악화

◆ 조정 전

2단계(여행자제)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슬라웨시주

1단계(여행유의) 2단계 지역 이외 여타지역

◆ 조정 후

2단계(여행자제) 아체주, 말루꾸주, 중부슬라웨시주, **파푸아주**

1단계(여행유의) 2단계 지역 이외 여타지역

재외선거운동방법안내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국외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 단,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되며, 여러 명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을 보내는 자동동보통신 금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단, 후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행위 금지

◆ 선거운동기간(11.27~12.18)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

-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또는 말(언어)로 하는 선거운동
- ※ 전화 선거운동 가능시간 (현지시각 기준) : 오전 6시~오후 11시
- ※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호별방문은 금지

◆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전화, 말)이라도 선거일에는 금지됩니다!

본 안내에 의하여도 위법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재외공관 선거담당 또는 중앙선관위원(82-2-502-8475, 82-2-502-6516),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는 대한민국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 안내에서 허용되는 사례라 하더라도 거주하는 국가의 법규 등에는 위반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관련 안내문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에 반드시 우리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 여권상의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대사관 FAX 또는 EMAIL로 송부해 주셔야 재외국민등록이 완료되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에 “최초입국스탬프면”을 우리 대사관으로 송부해 주지 않아 재외국민등록이 미완결된 것이 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보신 분들 중에서 아직 여권상의 “최초입국스탬프면”을 송부하지 않은 우리국민들께서는 우리대사관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의해 “최초입국스탬프면”을 보내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일정 등 공지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외부재자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출장접수를 할 예정이오니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 년 8 월 13 일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재외투표관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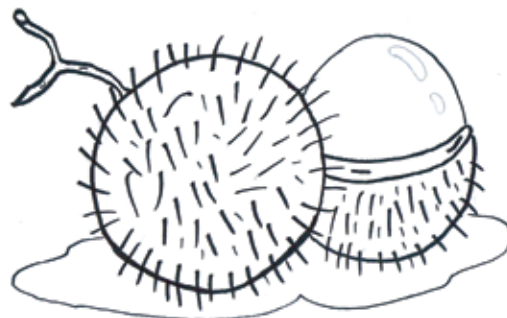
일 시	장 소	지참서류	비 고
9. 11(화) ~15(토) / 9. 17(월) ~22(토) 09:00~12:00, 13:00~17:00	무 궁 화 본 점	여권사본	
9. 18(화) ~ 22(토) 09:00~12:00, 13:00~17:00	Garding Resort Residence 1층로비 (끌라빠가딩 MOI내)		
9. 18(화) ~ 22(토) 09:00~12:00, 13:00~17:00	무 궁 화 찌까랑점		
9. 18(화) ~ 22(토) 09:00~12:00, 13:00~17:00	Amartapura Apt Tower A 1층로비 (땅 그 랑)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가지고 오시면 복사 또는 촬영을 하여 여권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빨간머리 람부탄

Sapindaceae (Soapberry) 과



동 남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과일로 열대지역에서 재배된다. 과즙이 풍부하고, 빨갭게 익어갈 때는 녹색 잎이 대비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길이는 3-5cm, 투명한 과즙이 많으며 감미로운 육질 부분이 딱딱한 겉껍질에 싸여 있다. 잼, 젤리, 통조림으로 가공되어 판매기도 한다. 눌러 보았을 때 단맛이 확 풍기는 것 털의 색이 어둡지 않고 밝게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 효능 ☆☆☆

- ★ 인이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 임신수유기 여성에게 좋다
- ★ 비타민 C 함량이 높다
- ★ 칼슘과 철의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한다
- ★ 췌는 당뇨치료에 사용되며
- ★ 잃은 머리가 희어지는 것을 막을 때
- ★ 껍질은 열병 및 이질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마약사건 연루 주의 등 안내문.....	6
재외선거운동방법 안내 외	7
국외부재자신고 출장접수 일정 등 공지.....	8
알고먹으면 약이 되는 열대과일/람부탄.....	9
차 한 잔 마시며<김문환> /대선열풍.....	12
인터뷰> 박재한 PT. BPG 사장.....	14
특별기고> 대한민국과 류큐왕국.....	18
연재기고<신성철>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에게 명절이란.....	24
풍경과 사람<엄종한>/ 휴가가 지나간 자리.....	27



표지설명 ▶▶▶

책과 자연을 벗 삼은 행복한 가을 맞이하세요.

표지디자인 : Diki Satria Nugraha @dqddoodle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9월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후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국의 9월은 가을의 시작, 인니의 9월은 머잖아 우기를 알리는 경계선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건기도 곧 물러나겠지요. 창가에 앉아 한 여름의 열기를 식히고 차분하게 책을 읽는 행복! 9월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달입니다.

오는 10월에 펼쳐질 한·인니문화주간의 다양한 행사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haninnewsinni@gmail.com 박 정 자



이모저모, 한인사회.....28

- 제6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 한-인니 복수 항공사 운항시대
- 무디스, 한국신용등급 가장 높은 수준 평가
- 여수박람회 폐막
- 북한인권, 난민문제 동남아에서 최초 논의
- 인니 관세 인하 의무 지연 관련
- 인니국방부 한국에 잠수함 3척 공식 주문
- 한-인니 공동연구 강화 필요성
- 최근 인니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인니 경제 점진적 상승세
- 대사관-UI 한국문화코너 설치 합의
- 삼익기술학교 제1회 졸업생 배출
- 고객과 소통하는 이글 'EAGLE FUTSAL CUP 2012'
- 삼성, JIKS에 대형 TV 기증
- SMTOWN WORLD LIVE TOUR
- 끄라까따우포스코 고로 4분주 입주식
- 한-인니 친선의 밤
- KOICA-경희대학교 석사과정 사후관리 컨퍼런스
- 인도네시아헤리티지소사이어티
- 2012 런던 올림픽
- 직스 소식
-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 / 박용희

Jalan-jalan Jakarta <사공경>

/와양박물관.....48

속담으로 익히는 바하사인도네시아 <박정자>

/Garam di laut asam di gunung bertemu56

행복에세이 <서미숙>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58

건강하게 삼시다 <박진원>

/시대변화에 따른 질병 변화와 대처.....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노동분쟁 해결 절차법 1.....65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68

와칭! 코리아.....69

한인회임원찬조금.....70

생활정보.....72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열풍 大選熱風

김 문 환 / 논설위원 · 재외선관위원장

최근 해양주권 문제를 놓고 아시아 국가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센카쿠, 쿠릴열도 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들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모두 최고지도부 선거, 또는 교체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서로 부딪치는 파열음이 유별난지 모른다. 한국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며, 중국도 오는 10월 제5세대 지도부로 교체된다. 아울러 일본도 중의원 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탄생될 것이며, 이 지역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들 3국과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절대중립’이라는 말로 일관하는 미국도 금년 11월 6일 대선을 목전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2014년 4월 9일 총선을 거쳐 7월 대선일까지 꽤 남아 있지만 ‘중임조건’에 걸려 더 이상의 출마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한계성 때문에 일찌감치 차기 도전자들의 행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이며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주지사선거의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왜냐하면 러닝메이트제로 실시되는 주지사선거는 후원정당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며 2014년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 선거법상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취득하지 못하면 상위 최다득표 2개조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5개 팀이 출마한 지난 7월 11일 1차투표에서 결정된 상위 2개팀이 벌이는 결선투표일이 이번 달로 다가왔다. 그런데 1차투표에서 최다득표를 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바수끼(Basuki)조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마지막 1주일 전부터 여론의 흐름을 바꿔 전세를 역전시키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지사 후보자인 조코는 자카르타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중부자바 솔로(Solo)시 출신으로 그 지역 명문대학인 가자마다대학 입학과를 나와 가구사업에 종사했던 평범한 중소기업 사업가에 불과했다. 그 후 출신지의 현직시장을 지내고 있는 경력을 발판으로 국가의 심장부인 자카르타에 선거원정을 나온 셈이다. 한편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바수끼도 자카르타라는 도시와 구색을 맞추기에는 거리가 먼 후보자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소요사태가 터졌다 하면 항상 희생양이 되어 수난을 당하여 왔던 화교계이며, 더구나 자바출신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종족적인 차별로 인해 소외되어 온 수마트라섬 동쪽의 주석광산 지역 벌리퉁 띠무르(Belitung Timur)군 출신이다. 고향에서 한국인 투자자와 체련사업도 운영했던 그는 정치적인 핸디캡이라 할 수 있는 화교신분, 비자바인이라는 이중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출신지역의 군수에 당선되는 역량을 발휘하더니 자카르타 거주 화교계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젠 중앙무대로의 입성을 겨냥하고 있다. 더구나 조코의 출신지이며 거주지인 솔로시에 최근 폭탄테러까지



발생하여 선거와 관련된 암시가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면서 극적인 요소까지도 더해지고 있다. 1차투표 결과에 따라 일단 합종연합을 거쳐 재대결하게 되는 이번 9월 20일의 결선투표에서 조코/바수끼조의 이번이 최종 결승전까지 그대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선거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인지, 아니면 자카르타 토착민(Betawi족)으로 노련한 지방관리 출신의 화우지 보워(Fauzi Bowo) 조가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얹고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금년 1월 2일 대사관저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필자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마이크를 넘겨 받아, “금년 한해는 1년 내내 선거 분위기에 휩싸이는 ‘선거의 해’가 될 것”임을 언급했듯이, 요즘 한인 언론매체를 접하노라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재외국민선거 홍보물에 파묻히게 된다. 18대 대선을 위한 국외부재자신고가 시작된 지난 7월 말 경에 모습을 드러낸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씀을 필두로, ‘재외국민투표는 응원’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친숙하게 다가온 차범근 부자(父子)의 신선함까지 더하여 재외국민 유권자의 마음은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길을 재촉하여 등록처로, 투표소로 달려가고픈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 하다. 해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면서 터득한 요령도 있을 터이니,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대사관, 또는 지정된 등록처로, 그리고 재외국민 투표일인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대한민국 영사권이 미치는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투표소를 꼭 방문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다.

보라!

얼마 전 이 작은 나라에서 금메달 13개를 차지하여 세계 5위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 태능선수촌의 젊은 영웅들! 그들은 누구의 아들 딸들인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대한민국의 작은 영토를 뒤로하고 수십 년 전부터 보르네오의 정글로, 아프리카의 불모지로 뛰쳐나가 국력을 확장하고 있는 7백 5십만 재외국민들의 자손들일 수도 있으며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 2012년 12월, 이제 재외국민 우리가 제 몫을 할 때가 온 것이다. 특히 40년 동안 세계 어느 교민사회만큼 모범적인 궤적을 그려온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 사회도 여기에 빠질 수 없기에, 본인신분증을 꼭 챙기어, 다정스럽게 자녀들 손을 이끌고 자카르타 수디르만가(Jalan Sudirman) 한국문화원에 모여 선거문화의 현장교육과 민주주의 축제에 함께 동참하신다면, 이 얼마나 뿌듯한 행보가 되겠는가. ■

인터뷰 > 박재한 사장(PT. BPG)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
의지력과 긍정, 신념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박재한 사장 PT. Busana Prima Global

지난달 7월에 자바팔레스호텔(Cikarang 지역 Kota Jababeka공단에 4성급 비즈니스호텔) 건립 기공식을 가졌던 박재한 사장. 호텔 사업을 결심하기까지 사업구상을 하는 시간만 해도 8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나라의 허가요건을 갖추고, 위치를 선정하고, 사업전망을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충실히 준비한 다음에 실행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한 사장의 이번 호텔 건립 소식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사람으로서의 처음으로 호텔 사업을 결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많은 사람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재한 사장은 봉제공장 PT. BPG(Busana Prima Global)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정착한 동포를 세대별로 나누어본다면 이곳에 정착한지 20년이 넘는 그는 한인동포 사회의 2세대라고 할 만하다. 낯선 외국 땅에서 자기 사업을 일구고 ‘성공’이라는 객관적 평가를 받기까지는 견디기 힘든, 수많은 시련의 시간이 밀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박재한 사장에게서 그 시간의 층들은 베테랑 사업가다운 예리함과 오래 견뎌온 친근함으로 읽힌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보고르, 공장 앞마당에 들어서자 거대한 황룡 두 마리가 하늘과 땅의 상서로운 기운을 감고 방문객을 맞는다. 그리고 꽃사슴 3마리, 공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누구나 좋아하는 동물이라 키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쯤이면 공적이고 사무적인 일로 공장을 찾았던 사람들이 한 겹 마음을 내려놓고 상담이나 대화를 시작할만하다.

‘일체유심조’, 박재한 사장이 직접 썼다는 서예 액자가 벽에 걸려 있는 사무실. 2년 전부터 서예를 배우고 있는데 좋아하는 글귀를 직접 써서 걸어두고 볼 수 있어서 좋다고 쑥스러워한다. 자필 묵연 회원으로 매주 빠지지 않고 서예를 배우러 나간다는 그의 사무실 한편에는 수많은 습작과 함께 문방사우가 갖추어져 있었다. 언제든지 먹을 갈 수 있도록.

■ 먼저 자바팔레스호텔의 건립 기공식을 축하드립니다. 호텔사업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관심과 축하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호텔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숙원이기도 했으며 봉제업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찾아보았는데 여러모로 호텔이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사업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호텔이 들어서는 찌까랑 자바베카 지역은 비즈니스 허브도시로 다국적 및 현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30여개 국가의 1,50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무려 73만여명의 산업인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근거리에 리본 찌까랑, 현대공단, 델타 실리콘, MM2100, 까라왕 등 크고 작은 산업공단이 있어서 비즈니스맨을 위한 호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도 인도

네시아 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긍정적이고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 호텔 건립에 대한 기사는 한인뉴스 8월호에 실렸으니 사업가 박재한 사장님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인니에 정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이 어언 22년이 된 것 같은데 처음 2년은 출장으로 다녔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 상주 한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 봉제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셨다고 들었습니다. PT. BPG는 언제 설립하셨는지요.

올해가 15살인 셈인데 1997년 3월 12일에 설립했으며 우븐 및 니트 소재의 전문유명브랜드 스포츠웨어 생산을 시작으로 지금은 초기능성 아웃도어까지 주력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핑(Ping), 퀵실버(QuikSilver), 르코끄 스포르티브(le coq sportif), 캘빈클라인(Calvin Klein), 필라(Fila) 등 많은 스포츠브랜드와 아웃도어브랜드사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거래처를 잃지 않도록 신뢰관계 유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으실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봉제업은 대내외적으로 상황변동이 많고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여러 번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몇 해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에 국빈방문으로 오셔서 저희 회사에 오셨을 때 일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현장을 보여 드릴 수 있었던 영광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직원들에게 많은 격려말씀을 해주셨던 때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남아 있



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곳 최대 명절인 르바란 휴가 때인데 저희가 생산하여 공급하는 축구 유니폼 팀 중 하나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팀 에버턴(Everton)으로부터 초대받았던 일입니다. 그때 회사 임직원과 함께 에버턴 홈구장에서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관전하는 행운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 지금은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졌죠? 직원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사장님만의 경영비법이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 공장은 2,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인은 물론이고 현지인 직원들까지 한울타리의 한식구인 동반자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분담된 업무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동선을 만드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애사심을 끌어내어 회사가 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외국에서 이렇게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남다른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

이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념이 사장님을 오늘날까지 키워주었나요.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의지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더러 어수룩하고 미련한 촌놈 같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이미지가 싫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업무에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작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리만큼 온갖 정성과 시간을 쏟아 붓는 성격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이미지가 몸에 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은일도 가리지 않고 제가 더 앞장서서 하다 보니 임직원들 역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각자의 일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으면 마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모든 것을 해 왔습니다.

■ 재인니한인사회에 젊은 세대가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배로써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젊은 세대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조언을 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그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



오,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최선의 노력으로 성공까지 끌고 간다는 강한 의지를 모두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마인드야말로 진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은 1세대, 2세대의 자원, 제조업종의 편중된 진출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입니다.

■ 현재의 봉제업과 호텔 사업 외에 또 다른 사업도 구상하고 계신지요.

자바팔레스호텔을 시작으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호텔 건설 및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부지에 규모를 확장해서 사업성도 있고,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해 와서 자신 있는 봉제업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점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사람 없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기에 맞게 항상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현재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실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서 발 빠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복지 향상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보험, 의료시설, 통근버스 등 작업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면서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외국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한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인사회에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협회 및 동아리, 소모임이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취미를 이어가고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정신건강을 키우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편안하고 활기찬 해외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류큐(瑠球)왕국

대한민국은 윤봉길이 있었고 류큐는 윤봉길이 없었다

글 박대우



<1931년 윤봉길 의사가 한민애국단에 입단할 때 쓴 선언문과 함께 찍은 사진(왼쪽). 오른쪽은 선언문 사본>

독도 영유권 문제와 센가쿠(尖閣)열도 분쟁을 다루는 일본의 두 얼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하였고 이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가 자국의 영토를 방문한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일본정부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이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를 밟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이 애국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없지만 일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1952년 한국전쟁의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던 대일 강경주의자 이승만(1875~1965)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왜 임기말인 이 시점을 택하여 특별한 실리도 없는 일회성 깜짝 퍼포먼스를 행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홍콩의 시민운동가들이 선편으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가쿠(尖閣) 열도 (5개 무인도와 3개 암초로 구성됨-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에 상륙을

감행하였고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파견하여 이들을 즉각 체포하여 강제 송환시켰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취한 강경자세에 비하면 홍콩 시위대는 벽돌을 던지고 일본 경찰의 공무집행에 저항했지만 단순한 불법입국 혐의만 적용하여 조용히 넘어가는 것도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저의 아마추어적 시각으로는 제 주머니 안에 들어온 물건은 남에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챙기고 남이 가진 탐나는 물건은 시끄럽게 떠들고 주변의 이목을 끌게 하여 다툼거리로 만든 다음, 자신들의 국력과 국제적인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빼앗으려는 야비한 수작이며 이것이 같은 무인도 영유권 문제지만 독도와 센가쿠열도를 다르게 다루는 일본의 외교책략이 아닌가 봅니다.

재일교포 2세인 일본 동경대 강상중(1950년생) 교수 같은 이는 “이대통령의 독도방문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땅한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독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전략적

실수이며 특히 이대통령이 일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발언이 일본 특유의 건국신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천황제도와 국수적이고 경직된 우익 문화를 건드림으로서 동북아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라는 ‘판도라의 상자’ 만 연 꼴이 되었다” 라고 평했습니다.

역사를 보는 다양한 눈 - 영웅사관이나? 민중사관이나?

최근에 불거진 중국-일본 간 센가쿠(尖閣)열도 영토분쟁을 보면서 지난해 경희대 강효백 교수가 발표한 “일본-중국 흥망의 키” 라는 논문 중 ‘한국과 류큐(琉球)의 운명, 운봉길이 갈랐다’ 라는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독립을 했는데 류큐(琉球)왕국은 왜 일본의 일부인 오키나와(沖縄)현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 배경과 2차 세계대전 후 전개된 국제정치 질서의 시각에서 분석한 흥미로운 글이었으며 우리나라가 2차 대전 후 ‘대한민국’ 으로 건국하게 된 것은 운봉길(1908~1932)이라는 영웅적인 독립투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다시 한 번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자유,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가 숙여지는 숙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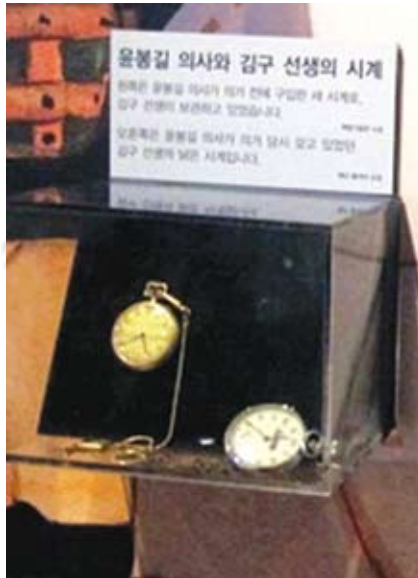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독일의 역사가 랑케(1795~1886)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역사가의 사명은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를 밝혀내는 일이다” 라고 역사학의 실증주의를 강조했지만 ‘서구의 몰락’ 을 쓴 슈펜글러(1880~1936)는 역사를 문화형태론으로 보아 문명은 발생, 성장, 노쇠, 사멸의 생명체와 같은 과정을 밟으며 서구문명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19세기 역사 철학자 헤겔(1770~1831)은 “세계사는 자유정신의 발전과정” 이라는 관념론으로 역사를 설명했지만 칼·막스(1818~1883)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며 노동의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필연적인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물질적 욕구가 사회발전의 유일한 동력이라는 유물사관을 주장했습니다.

20세기 들어 발전사관을 비판하고 “역사 그 자체는 시간의 흐름일 뿐,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나타나면서 미국 투자가 조지·소로스가 존경의 표시로 자신이 설립한 재단의 이름을 “열린사회와 그 적들” 이라는 그의 저서’ 에서 따왔다는 철학자 칼·포퍼(1902~1994)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는 의미가 없으며 발전하지도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가장 걸출한 영국의 역사학자 E.H. CARR(1892~1982)는 “역사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주장하고 결국 역사란 기록의 산물이며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대의 시대상을 보는 눈으로 항상 새롭게 역사를 해석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는 영웅이 만들어 가느냐?, 민중이 만들어 가느냐?’ 라는 논제를 놓고 영웅사관과 민중사관





모두를 거부하고 ‘역사란 극소수의 영웅과 그 시대를 살아간 민중이 함께 만들어 간다’ 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독립문제를 논의했던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과 그 후 한국과 류큐왕국의 엇갈린 운명을 되돌아보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역사의물줄기를 바꿔 놓는 것은 영웅이 촉발시킨 한 줌의 불쏘시개가 민족 전체의 명운을 갈랐다는 사실 또한 지나간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와 류큐(琉球)왕국 - 동병상련의 슬픈 운명

일본의 오키나와현(沖繩縣)은 일본과 대만 해역의 중간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6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열대 해양군도이며 현재 일본과 중국간에 영토분쟁이 되고 있는 센가쿠(尖閣)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는 이 군도의 남쪽 끝에 놓여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면적은 제주도의 1.2배이며 인구는 140여만 명, 현청은 나하(那覇)시에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류큐(琉球)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조선왕조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호혜실리의 조공관계에 있던 엄연한 자주독립국이었습니다.

류큐왕국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조선조 중기 명문가 출신의 이단아였던 허균(1569~1618년)이 쓴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에 홍길동이 마지막에 오키나와로 추정되는 율도국을 동경하고 그곳으로 떠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당시 오키나와는 요즘으로 치면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번영을 누린 동남아 해상루트상의 무역허브였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은 선조 때 동인의 영수이며 청백리였던 허엽(1517~1580)의 3째 아들이자 여류시인 허난설헌(1563~1589)의 동생으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한국인 최초로 천주교 신자가 된 혁명가였으며 광해군 때 반역죄로 참형을 당한 비극적 인물입니다.

류큐왕국은 16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아시아 항로개척에 나섬으로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1797년에는 영국군함이 정박하였고 1853년에는 미국의 페리(1794~1858) 제독이 이끄는 해군 함대가 나하(那覇)시에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68년 명치유신으로 근대식해군력을 갖춘 일본이 1879년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의 지휘 아래 무력으로 류큐왕국을 점령하고 오키나와현(沖縄縣)을 설치하여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류큐왕국의 쇼타이 국

왕을 동경으로 압송하여 후작에 봉함으로서 1429년 쇼하지 왕이 개국한 후 450여년을 이어온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몇 차례 외침과 민란으로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당파싸움과 세도정치로 속병이 깊었던 조선왕조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894년 동학 농민전쟁을 빌미로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원세개(1859~1916)의 북양해군을 궤멸시킴으로서 종이호랑이로 전략한 청나라를 조선에서 몰아냈으며 1904년 러일전쟁에서마저 승리한 후에는 사실상 조선을 독점하게 됩니다. 1905년 7월에는 일본수상 가즈라(桂太郞)와 미국의 육군장관 테프트가 밀약을 맺고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였으며 그 해 11월에는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후 1910년 한일합방을 완성함으로써 한국은 36년의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나라의 세력권 아래 함께 속해 있던 류큐왕국과 조선왕국이 1879년과 1910년에 각각 일본 제국주의에 편입되었으니 두 왕조의 운명은 참으로 유사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말 시인이자 우국지사였던 황현(1855~1910)은 망국의 치욕을 참을 수 없어 절명시 4편을 남기고 음독, 순국했는데 그가 쓴 ‘매천야록’에 조선을 망하게 만든 3대 패악으로 ‘관서기생, 전라아전, 호서양반’을 들었습니다. 평안도기생이 나라의 풍속과 윤리를 음란하게 만들어 젊은 선비들을 병들게 하였으며 전라도에서는 지방 아전들이 어찌나 권세가 세웠던지 양반들을 잡아 다가 불기를 치고 토색질을 일삼았으며 충청도양반은 나라의 앞날은 뒷전이고 그저 음풍농월과 일가권속 쟁기는데만 열중했다는 이조 말의 병들고 무능한 지도자들의 행태와 부패하고 피폐해진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기록입니다.

조국독립을 위해 산와안 청년 혁명가 윤봉길(1908~1932)

매현 윤봉길은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세까지 고향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1930년 3월 “丈夫出家 生不還(장부출가 생불환-대장부가 집을 떠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글을

남기고 망명의 길에 올라 상해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자객 형가(? ~BC227)가 훗날 진시황이 된 진왕 정(政)을 죽이기 위해 역수를 건너며 노래했다는 “風蕭蕭兮易水寒 士一去兮不復還(풍소소혜역수한 사일거혜불부환-바람은 쓸쓸하고 역수 물은 차구나, 대장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으리)”와 유사한 맹서입니다.

1931년 윤봉길은 임시정부 지도자 백범 김구(1876~1949) 선생을 만나 소원하던 조국독립의 제단에 몸을 던지게 될 기회를 맞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행사를 상해 홍구공원에서 거행할 예정’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백범이 주도하던 한인애국단에 가입합니다. 거사일 아침 모든 준비를 끝내고 백범과 함께 아침식사를 한 윤봉길은 마지막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백범이 전하는 금강경의 말씀 “懸崖撒手 丈夫兒(현애철수 장부아-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것이 참 대장부다)”를 듣고 “이제 제 시계는 한 시간 밖에는 쓸 일이 없으니 선생님의 낡은 시계와 바꾸시지요”라며 시계를 교환하고 나서 목이 메어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라는 백범의 마지막 작별인사를 뒤로 하고 도시락폭탄을 몸에 품고 홍구공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봉길은 준비해 간 폭탄을 연단을 향해 투척했고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식장은 순식간에 수라장이 됩니다. 단상에 있던 시라카와(白川) 대장, 가와바다(河端) 일본 거류민 단장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노무라(野村) 중장은 실명, 우에다(植田) 중장은 다리가 잘렸으며, 시게미츠(重光) 공사는 절름발이가 되고 무라이(村井) 총영사와 토모노(友野) 거류민단 서기장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일본 대판형무소로 옮겨져 수감되었다가 그 해 12월 19일 총살형으로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국함으로써 짧지만 영웅적인 혁명가의 생을 마쳤습니다.

윤봉길의 의거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중국의 장개석(1887~1975) 총통은 “중국의 백만 대군도 못한 일을 일개 조선청년이 해냈다”고 감격했으며 이제까지 우리 임시정부를 할 일없는

망명객들이 모여 싸움이나 일삼는 파락호 집단쯤으로 여기고 냉대하던 종전의 태도를 180도로 바꾸어 상해임시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중국육군중앙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여 한국독립군 양성을 돕기 시작했으며 침체일로에 빠져 있던 상해임시정부는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안국과 류큐의 명운을 가른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루스벨트(1882~1945), 영국의 처칠(1874~1965), 중화민국의 장개석(1887~1975) 등 연합국의 3수뇌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전후 질서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일본의 영토를 1914년 1차 대전 이전으로 되돌리고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며 한국의 독립 문제를 처음으로 합의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카이로 선언에 따라 일제가 통치하였던 동남아와 태평양의 여러 지역들과 한국을 비롯한 만주, 대만 등 식민지는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나 류큐왕국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잊혀진 왕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카이로회담은 류큐왕국이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류큐인들은 류큐의 독립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부끄러우리 만큼 일본에 완전히 순치되었고 류큐인들의 독립의지와 실천노력이 너무나 미약하고 미미했습니다.

카이로에서 미-중 양국 간의 첫 정상회담은 11월 23일 오후 7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장개석은 왕충혜 국방위원회 비서장을 대동하고 루스벨트의 숙소로 건너갔으며 두 정상은 주로 일본이 점령한 지역의 전후처리문제를 숙의하게 됩니다. 시침이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루스벨트의 입에서 줄음을 확 깨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류큐는 일본에 의해 불법 강점당한 활모양의 호형(弧形) 군도입니다. 마땅히 탈환되어야 합니다. 류큐는 중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각하가 원한다면 류큐군도 전부를 중국에 넘겨주겠습니다.” 루스벨트의 통 큰 제안에 대해 장개석은 “류큐는 우선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공동관리한 후, 국제신탁통치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외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틀 후 11월 25일 재개된 미-중 양자회담에서 루스벨트가 류큐를 다시 거론하였습니다. “류큐의 미래에 대해 숙고해 보았습니다. 타이완에서 규슈(九州)까지 서태평양을 둘로 가르는 류큐는 중국의 안보방파제입니다. 그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큼니다. 중국이 타이완만 탈환하고 류큐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타이완은 물론 중국본토의 안보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중요한 류큐를 침략적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의 손아귀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본인은 아무래도 류큐를 타이완과 평후(澎湖)제도(대만해협에 있는 여러 섬)와 함께 귀국이 관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개석은 “.....”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개석의 침묵이 답답했던지 루스벨트는 다시 간단 명료한 어조로 “각하가 원한다면 전쟁이 끝난 후 류큐를 중국에 주겠습니다.” 그러나 장개석은 “류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류큐는 중미 양국이 공동 신탁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는 불가사의한 우답을 하여 루스벨트는 두 번 다시 류큐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후일 중국공산당지도자들은 장개석이 일본육사를 졸업하고 친일적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을 배려한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장개석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결코 잊지 않았다

왜 장개석은 류큐의 독립이나 중국 영토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의 독립만을 주장했을까요? 실제 카이로회담에서 처칠은 한국에 대해 미-영-중 3국의 신탁통치안을 제안했으나 장개석이 이를 일축하고 대신 한국 독립의 약속을 선언에 넣어 발표하자는 기습적인 제안을 관철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건만 들라면, 역사는 명쾌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 누구는 한국의 청년 윤봉



길이고, 그 무었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성공한 상해의거라고….

카이로 회담 전 1943년 7월 26일, 장개석은 백범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국제공동관리하의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임시정부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장개석은 카이로 회담 첫날인 11월 22일, 자신의 일기장에 ‘종전 후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를 건의할 예정’ 이란 문구를 명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초대대통령이자 프린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이승만 (1875년~1965)도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고 그 선언문에 명문화시킨 최대 원인은 윤봉길의 의거에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윤봉길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성취했고, 류큐(오키나와)는 윤봉길 같은 항일독립영웅이 없었기 때문에 망국의 길을 걷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1993년 일본 NHK-TV에서 ‘오키나와의 바람(沖縄の風)’ 이라는 대하드라마를 방영했는데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에 의해 근대화를 강요당한 류큐(琉球)민족의 비애를 다룬 역사극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 동화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형과 류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생, 두 형제간의 갈등과 향토애를 그린 이 드라마의 작가 진순신(1924년~)은 고베(神戸)에서 태어난 대만 국적 중국인으로 ‘실록청일전쟁’, ‘칭기스칸’, ‘삼국지’, ‘제갈공명’ 같은 베스트셀러를 쓴 일본의 역사소설가인데 1989년 6월 중국의 천안문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국군인의 무자비한 유혈진압과 참혹한 살인극을 보고 난 후 일본에 귀화하고 말았습니다.

등소평(1904~1997)이 1992년 남방순회로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한 이래 중국은 1980년대 강택민(1926년생)의 도광양晦(韜光養晦)정책과 2002년 4세대 호금도(1942년~)의 화평掘起(和平掘起) 외교정책으로 이제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금년 10월에 들어설 제5세대 습근평(1953년~)을 중심으로 한 새 지도부가 어떤 대외정책을 택할지 관심사이지만 아마 이전 정권보다 더욱 강경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명약관화한 만큼 일본의 허약한 노다(野田)정권으로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각국이 망망대해의 조그만 돌섬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영유권분쟁, 영토전쟁에 돌입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 성 철 / 데일리인도네시아 발행인

daily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에게 명절이란?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이돌피트리(르바란)가 지났다. 올해 이돌피트리 연휴에는 집에서 쉬면서 밀린 잠을 자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운전기사도 휴가를 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서 나갈 일을 만들지 않았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시골에 가서 가능한 한 집도 어지르지 않은 채 식사도 외식을 하거나 미리 사놓은 빵으로 해결했다.

명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하늘이다. 공장도 서고 자동차도 현저히 줄어드니까 하늘이 파래지고 시원한 바람도 더 많이 분다. 도로에 오토바이가 줄어드니 엔진소리도 줄어서 창문을 열어도 시끄럽지가 않다. 이돌피트리에는 관공서와 기업이 모두 쉬고 상점도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남에 따라 도시도 휴식을 한다.

23년 전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성탄절과 신정이 공휴일이었지만 조용했고, 음력설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출근했다. 당연히 명절 또는 축제라는 느

낌도 없었다. 하지만 4월에 라마단이 시작되자 낮에는 조용해도 밤이 되면 부카뿌아사(무슬림들이 단식을 마친 후에 하는 첫 식사)를 한다고 집집마다 소란스러웠고 이돌피트리가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들떴다. 성탄절과 신정에는 조용했던 방송국과 상점들도 이돌피트리에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회사에서 현지인들에게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했고, 여기저기 거래처에도 선물을 보냈다. 라마단 마지막 날인 이돌피트리 전야에는 모든 이슬람사원에서 밤새 딱비란(Takbiran)을 암송했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밤새 생수통이나 드럼통을 두드리며 거리를 누볐고 곳곳에서 쏘아 올린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명절이었던 날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용하게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 지나갔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오기 전까지 있는 줄도 몰랐던 이슬람 명절에는 전체적으로는 축제분위기가 있었지만 나에게서는 남의 명절이었고 오히려 가사도 우미와 운전기사도 없고 상점까지 문을 닫아 불편

한 시간들이 되었다. 지금이야 백화점과 상점 및 식당이 이틀피트리 당일에도 영업을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 업소들도 최소한 이들은 문을 닫았다. 혹시 열더라도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식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식당 종업원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고향으로 떠나서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들도 귀향을 해서 거리에서 택시 잡기가 어려웠다.

이슬람력은 현재 세계의 표준이 된 태양력보다 11일 가량 짧기 때문에 매년 이틀피트리 날짜가

당겨져서, 내가 처음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이틀피트리가 5월이었는데 올해는 8월 중순이 됐다. 1997년 말에 아시아 통화 위기가 터지고 이듬해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이 하야한 후 인도네시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서구 문화가 대거 유입되고 쇼핑몰과 방송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중국문화가 허용되면서 성탄절과 음력설이 인도네시아에서 대표적인 명절로 자리잡게 됐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대가족의 해체를 가져왔다. 교통과 관광산업의 발달로 예전보다 고향에 가기가 수월해졌음에도, 귀향 대신 여행을 떠



● 이틀피트리



● 하지 가축시장



● 쇼핑몰의 성탄절



● 발란타인데이

나는 사람이 늘었고 일부 사람들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도 없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내 호텔에 투숙해 연휴를 보내는 새 풍속도 생겼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명절이라는 단어에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전통문화와 가족 또는 고향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맞는 추석과 설에는 고향의 가족과 풍습이 빠진다. 물론 송편과 떡국을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허전하다. 이돌피트리도 우리에게 인도네시아 문화나 이슬람 신앙에 대한 내재화된 공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휴일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인지 고국이 아닌 해외에서 보내는 명절은 그냥 휴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자카르타 위성도시인 땅그랑에 사는 주부 정안순 씨는 이돌피트리에 대해 남편과 자녀가 모두 쉬기 때문에 가족여행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 했고, 이웃인 이미연 씨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 고용인에 대한 고마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으면서 남편과 자녀들이 가사일을 돕게 돼 가족끼리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11학년에 다니고 있는 추이영 학생은 부모님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현지인들에게 보너스를 주면 이돌피트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에게는 쉬는 날 또는 여행할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진수 학생(JIKS, 11)은 추석이나 설날은 별다른 느낌이 없고 이돌피트리는 가사도우미가 없어서 불편한 날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이재미 학생(JIKS, 9)은 설날은 한국의 할머니께 전화하는 날일뿐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했고, 현정원 학생

(JKS, 8)은 이돌피트리와 설날 모두가 폭죽 터트리는 날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의 전통명절인 설날에 대해서는 정안순 씨와 이미연 씨 모두 자녀들에게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미연 씨는 지난해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국과 달리 음식을 준비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덜 부담이 되고 가족이 모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파티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역시 이들의 이웃인 김세재 씨는 우리 풍습을 알려주기 위해 자녀에게 이웃에 세배를 다녀오게 하고 송편을 직접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에 인용한 대답이 모든 교민의 생각을 대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명절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반추해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대가족이 핵가족이 되고 다시 1인 가족으로 변화하고 전통적인 풍습이 퇴색하면서 설날이나 추석 등이 명절이기보다는 그냥 연휴이자 여행할 수 있는 시기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도 도시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귀성인구가 감소하고, 쇼핑몰 등 현대식 상점이 발달하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성탄절과 음력설 뿐만 아니라 발렌타인데이와 할로윈데이 등 외국 명절과 풍습이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이돌피트리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제 명절은 고향이 아닌 백화점과 여행지에서 보내는 날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나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이어서 어느 명절도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내겐 명절이 밀린 일 또는 못 만난 사람을 만나는 기회이거나 여행하는 시간이 됐다. 이곳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나처럼 느낄까? 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진다.





Di mare rooftop Bar In Karma , BALI

르바란 휴가가 지나가는 자리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던 휴가의 흔적이
웬지 외로운 느낌을 주지만 또 다른 일 년이 있기에
힘차게 달려 보려합니다.

사진과 글 **엄종한** 한인뉴스편집위원

만세 삼창 우리 조상들이 해방을 맞은 감격으로
자주국방하자는 마음으로
세계를 품어 더불어 살자는 마음으로

제 6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



2012년 8월 15일, 제67주년 광복절기념행사가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승은호) 주관으로 대사관, 한인회, 민주평통, 월드옥타, 한국국제학교 등 한인사회 각계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카르타한국문화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애국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였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통령 기념사(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대독)에 이어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선 대사는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 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 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경축사를 대독하고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통일에 있으며 통일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이며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해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67년 전에 되찾은 조국의 소중함을 우리 모두가 절절히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 또 위험에 처해질지 모른다” 며 “우리 재외국민들은 조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나가야할지 생각해야 할 것” 이라고 단결을 강조했다.

한국-인도네시아 복수 항공사 운항시대

2013년 3월 31일부터 취항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국적사의 국제항공 노선 취항을 통한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총 11개 노선 주88회의 국제항공 운수권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에 따라 5개 항공사에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한국-사우디 등 8개 노선 주 28회,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인도네시아 등 5개 노선 주 26회,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한국-필리핀 주 10회, 에어부산이 부산-시안 등 2개 노선 주 14회의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한국-인도네시아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9회씩 운수권을 배분받았다.

한국-인도네시아 노선은 이번 배분으로 대한항

공 외에 아시아나항공까지 복수 항공사 운항시대가 열렸다. 이번 확대된 한국-인도네시아 운수권은 내년 3월 31일부터 취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중동지역과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한국-필리핀 노선의 경우도 주 50회 증편으로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 항공편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사우디 노선 신규 취항이 성사돼 중동지역 새 항공시장 개척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서울-충칭·허페이 등 5개 중국 노선 신규취항(부산-난징·부산-시안)과 증편이 가능해졌다.

노선별 운수권 배분 노선

노 선	구분	배분안					비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합계		주28회	주26회	주10회	주10회	주14회	
한국-사우디	여객	주3회					
한국-필리핀	여객	주10회 (주1,900석)	주10회 (주1,900석)	주10회 (주1,900석)	주10회 (주1,900석)	주10회 (주1,900석)	
한국-인니	여객	주4회	주9회				'13년 하계부터 취항가능
부산-시안	여객					주4회	
부산-난징	여객	주4회					
청주-항저우	여객	주1회					
서울-충칭· 허페이	여객		주5회				
서울-시안	여객		주1회				
한국-호주	여객	주1회 (주300석)	주1회 (주180석)				
한국-뉴질랜드	객화	주2회					
페루 5자유	여객	주3회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평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정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인 'Aa3'로 상향 조정했으며 전망 또한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상향은 무디스가 2010년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한 단계 올린 뒤 2년 4개월 만의 도약이다. 더욱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락되는 상황이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Aa3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4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벨기에, 칠레, 일본 등이 이 등급에 속해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활력 및 경쟁력, 은행부의 대외취약성 감소 등을 들었다. 2010년 이래 통합 재정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가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외부충격에 굳건하게 대응했고, 노동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또 거시건전성 조치를 통해 한국 은행들의 단기외채 비중이 감소하는 등 취약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행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등급상향 근거로 꼽았다.

최근 주요국의 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되고 올해 A레벨 이상 국가들에 대한 무디스의 상향 조정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S&P,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등급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로, 피치는 A+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평가는 국가신용도의 상승효과 외에도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 여건의 안정성, 공기업과 가계부채가 정부 우발채무로 전이될 가능성 감소, 경제 펀더멘털의 경쟁력 및 장기 성장전망 유지 등이 충족되면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해양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여수박람회 93일

해양·생명공존 담은 ‘여수선언’ 채택 후 폐막



남단의 작은 도시 여수가 해양 관광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토대를 마련한 여수세계박람회가 93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BIE(국제박람회기구)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 강동석 여수박람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등 각계 인사와 여수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하여 여수박람회의 유치부터 폐막까지 전 과정을 기록한 ‘93일간의 기억’ 영상물과 참가국 상설공연팀과 한국전통공연팀의 합동공연 ‘세계가 하나 되어’를 관람했다.

반기문 총장은 폐막식에 앞서 열린 ‘여수선언 포럼’에서 “여수박람회의 유산으로 남은 여수선언은 해양과 생명의 근간인 미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12일, 8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바다와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줬고, 국토

또한 BIE 페르디난드 나기 의장과 로레스 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여수시에 금메달을 수여했으며 강동석 조직위원장은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성원해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여수시민,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 참가국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황식 총리는 폐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식량난, 환경문제와 같은 범지구적인 도전에 직면한 인류에게 바다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많은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인류는 소모적 해양개발을 중단하고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나서 21세기 신(新)해양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화려한 박람회장을 무대로 알찬 전시를 선보였지만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도 이를 담아낼 그릇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조직위가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지역경제에 기대했던 ‘엑스포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국제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회의와 더불어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외교부, ASEAN 관계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인도네시아 주요 인권단체 등을 만나며 북한인권 상황을 전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자카르타 방문을 시작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를 타깃으로 하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북한인권, 난민문제,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논의

8월 9일,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브라질 인권단체 코넥타스(Conectas)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인권 난민문제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 주요언론사(Kompas Daily, Jakarta Globe, Tempo 등)와 시민단체(KontraS, Human Rights Working Group 등), 동남아시아 인권단체(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등),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미국,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ASEAN 태국 대표부) 등 약 70명이 참석하여 북한인권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매년 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고 있으며 북한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SEAN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동남아시아 이웃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인도네시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및 언론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의 하이라이트는 평안남도 북창군에 위치한 18호 관리소에 13살에 끌려가 28년간 살고 2008년 탈북하여 2009년 한국에 입국한 김혜숙(가명)씨가 증언한 28년간의 참혹했던 수용소의 삶이었다. 김혜숙 씨는 직접 그린 18호 관리소의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28년 동안 겪었던 강제노동과, 학교생활, 안전원들의 횡포, 가족들을 사고로 잃은 일 등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였다. 그는 “우리가 이렇게 북한인권에 대해 외친다면 외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金正은이 이유를 모른 채 40년을 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동생들을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휴먼라이츠워치 줄리 데 리베로(Julie de Rivero) 제네바 인권국장은 “민주국가는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되며, 자국의 인권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주국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무 지연 관련 현황

한 국외교통상부는 ‘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무 지연 관련 현황’에 대해 한·아세안 FTA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12년 1월 1일자로 관세 인하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입법조치의 지연으로 최근까지 의무 이행을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정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이달 초 관세 인하 의무 이행을 위한 자국 내 입법을 완료했다고 통보해 왔으며, 현재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가 제대로 인

도네시아 국내법에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세부 확인 작업 중이며 인니의 이행지연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우리 업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니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의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규정에 대한 재무부장관 No.118/PMK.OII/201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idn.mofat.go.kr

인도네시아 국방부 한국에 잠수함 3척 공식 주문



가한 가운데 한국에서 1척, 나머지 2척은 인도네시아의 PAL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국내 조선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인 도네시아 국방부가 한국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잠수함 3척을 공식 주문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프르노모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양측이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 기술을 이전하는 단계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참

군용잠수함의 해외수출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천 400t급 잠수함 3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주액은 역대 방산 수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이며 3척 모두 2018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잠수함은 전장 61.3미터에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며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8개를 갖춘 규모이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인도네시아와 공동연구 강화 필요성 강조

“인도네시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들 젊은이들은 똑똑하고 활기가 넘쳐 보인다. 또한 풍부한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특징을 지닌 인도네시아와 R&D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김도연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무역, 투자, 국방,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에서 이제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두 나라가 가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R&D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그 첫 번째 방법으로 공동연구와 연구 인프라 공유 등에 대한 실행안을 제시했다.

Gita Wirjaw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1만 4천명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은 공공분야에 속해 있으나, 한국은 35만 명의 과학기술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과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3월에 설립한 대통령직속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녹색기술, BT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 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한국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은 150억 달러로 전체 국가 예산의 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R&D 투자비중이 높은 나라로 글로벌 연구기업인 Batelle과 R&D紙가 발표한 2012 Global R&D Funding Forecast에 따르면, 전세계 R&D 투자는 작년의 1조 3,300억 달러에서 올해는 1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의 총 R&D 예산은 564억 달러로 전세계 다섯 번째의 규모의 R&D투자국이다. R&D 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는 미국(4,360억 달러), 중국(1,989억 달러), 일본(1,576억 달러), 독일(906억 달러) 순이다.

한국의 협력강화 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에 비해 R&D 투자비중은 낮은 편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R&D 예산은 24억 달러로 GDP의 0.2%에 해당한다.

양국은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인도네시아기술평가응용청이 한-인도네시아 생물소재연구센터(Korea-Indonesia Biological Material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인도네시아과학원이 공동으로 바이오에탄올 플랜트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유미 연구원은 최근 지역경제포커스를 통해 <최근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하고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화 조치는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와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인도네시아 정부의 우려가 보호주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과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내수산업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도입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비관세장벽은 △수입자 인증요건 강화 △수입농산물에 대한 통관 항구 축소 및 검역 강화 △축산물 수입 관련 규제 강화 △광물 자원 수출허가에 관한 요건과 △등나무 원목 수출 규제 등이라고 하면서, 이 중 수입제도에 대한 규제강화는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며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가공시설 설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입제도가 급변함에 따라 투자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도

네시아 내에 자원민족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비관세장벽 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결탁된 정책담당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식의 보호주의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분석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주요 원자재 수요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광물자원 규제 강화로 관련업계의 사업위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적절한 대응전략과 원자재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자 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협의체를 설립하여 비관세장벽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전담부서가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기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에서 TBT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R&D 및 양자간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경제 점진적 상승세 2분기 경제성장률 6%대기록

인도네시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유럽 부채 위기와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가의 영향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네시아 통계국을 인용해 6일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6.4%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1분기 GDP 성장률 6.31%는 물론 시장전망치 6.1%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통신은 인도네시아가 6%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정책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2월 기준금리를 5.75%로 인하한 이래로,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다. 프레드 김슨 무디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인도네시아의 교역국들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사관-UI 한국문화코너 설치 합의

“인도네시아 젊은 층 내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문화 알기 열풍에 기여할 거점이 될 것...”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은 8월 9일(목)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총장 Gumilar Rusliwa Somantri)와 UI 중앙도서관에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한-인니 문화코너(Korea-Indonesia Cultural Corner)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UI는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 측은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양측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과 더불어 한국대사관은 한국의 세종대학교가 매년 10명의 UI 장학생을 초청하는 학생교류에 관한 협약도 체결했다.

한-인니 문화코너 건립관계자는 “2012/13학년도 UI 한국어과 응시자가 1천명이 넘어 40명 정원을 60명으로 늘였다”며 “향후 문화코너가 개관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젊은 층 내에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문화 알기 열풍에 기여할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영선 대사는 “한-인니 문화코너는 인도네시아 젊은이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매년 UI에서 열리는 한국페스티벌은 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UI 한국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지난 2011년 7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에 알리고 한국문화와 인도네시아문화의 공통점을 찾아 화합하여 양국 문화가 상호교류하는 공간으로 자카르타 중심지에 한국문화원을 건립하였다. 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를 접하는 인니 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한글반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였으며, 동포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국어과정,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연중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역사 및 예술, 대중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양화, 서예, 전통공예 등 다양한 교육강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 및 일반인 단체 견학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및 한국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 콘테스트 개최, 한국영화 정기 상영, 각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한류를 확산하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 조성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양국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삼익기술학교 제 1회 졸업생 배출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 글로벌 CSR사업의 일환으로 (사)코피온과 (주)삼익약기가 함께 설립한 삼익기술학교가 지난 7월 27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삼익기술학교는 PT. Samick Indonesia가 20여년 동안 생산공장을 가동시킨 보고르 쥘롱시 지역에 설립한 학교로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취업을 돕기 위한 전액 무료 직업기술 학교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수업료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사, 교복 등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학교이다. 학교는 지난 2월에 첫 학생들을 받고 제빵반, 봉제반, 목공예반, 피아노 조율반 등 4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3개월 학교 수업, 3개월 현장실습’으로 수업기간에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현장실습은 현장 인턴이 되어 실질적인 현장직원들과 함께 생산에 참여하며 기술을 배워나간다.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실제 취업 후에도 터득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 실습의 비중이 더 크며 교사진 역시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숙련공들이다.

제빵반은 PT. Margareta sweta varia공장, 봉제반은 PT. SPM공장, 피아노 조율반과 목공예반은 PT. Samick Indonesia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진

행하였다. 봉제반과 제빵반의 경우 졸업생 전원이 실습 3개월이 끝난 뒤 각 공장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목공예반과 피아노 조율반의 경우, 현재까지 8명이 취업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채용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삼익기술학교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싸인한 졸업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이후 취업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2기는 현재 모집 중이며, 9월 3일 개강할 예정이다. 제빵반, 봉제반, 목공예반, 피아노 조율반 총 4반이 개설되며, 각 반의 정원은 20명이다. 현재 목공예반과 피아노 조율반은 2기 수강생 접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봉제반과 제빵반 역시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 16세에서 만 23세 사이의 인도네시아 청소년은 누구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봉제반과 제빵반은 초등학교 졸업, 목공예반과 피아노조율반은 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가능하다. 또한 보고르 지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의 청소년들에게 삼익기술학교의 문은 열려있다.

학교는 Kp. Sawah, Rt. 01/03, Ds. Cileungsi Kidul, Kec. Cileungsi, Bogor, Jawa Barat에 위치하고 있으며, 021)8248.1298로 전화하면 학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기사 : (사)코피온인도네시아 이수정>





고객과 소통하는 이글 'Eagle Futsal Cup 2012'

2011년 SWA에서 선정한 인니 내수 운동화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한 EAGLE 'EAGLE FUTSAL CUP 2012' 행사를 진행했다.

EAGLE 브랜드 판매시장의 전략적 요충지인 수라바야에서 지난 6월 개최한 이 행사에는 수라바야 지역 130여 팀이 참가해 치열한 접전을 보여줌으로써, 30년 전통의 EAGLE 브랜드의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예선전은 수라바야 소재의 실내 풋살 전용경기장에서 진행되었고,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결선에 오른 팀들은 7월 14일 토요일, 수라바야 중심가에 위치한 GRAND CITY MALL의 야외주차장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최후의 승자를 가렸다. 이날 진행된 그랜드파이널

경기에서는 우수 시범경기 및 댄싱팀, 라이브 DJ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곁들여 행사의 열기를 한층 북돋았고, 각 팀들의 서포터 및 경기를 구경나온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응원의 열기가 더해져 성공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행사를 주최한 이글 측 관계자는 “2012년 1회 행사를 기점으로, 매년 업그레이드 된 행사기획 및 마케팅활동으로 점차 늘어나는 풋살 인구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과 계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사진> 위-경기에서 우승한 'INDO MARET' 풋살팀이 트로피와 상금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 아래-스포츠브랜드 EAGLE은 지속적인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ealmadrid' 축구팀에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수라바야 지역에 설립한 학교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경기를 참관한 학생들과 EAGLE의 OK Kim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신축 JIKS 교실 및 다목적 공연장을 위한 대형 55인치 스마트 LED TV 기증식

7월 31일, 삼성전자인도네시아(법인장 김유영)는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선종복)의 신축 고등학교 교실 및 다목적공연장을 위한 대형 55인치 스마트 LED TV 기증식을 가졌다.

JIKS의 신축건물에 다량의 TV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한 삼성전자는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10대의 LED TV는 각 교실, 컴퓨터실, 공연장 등에 설치되어 학생들의 학습환경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김유영 법인장은 “전 세계 최고 TV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의미가 크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선종복 교장은 “TV의 이름과 같이 JIKS는 SMART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덕분에 학생들이 학습환경이 향상되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인니인들 마음에 꽃을 피운 한국문화는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서 출발되었다. 공연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인니인이 날로 늘고 있는 것을 웹사이트의 리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카르타 겔로라 봉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될 ‘SMTOWN WORLD LIVE TOUR III’ 콘서트를 기획한 WProductions & MPEnter는 소녀시대,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F(X), 엑소 등 글로벌스타들이 출연해 다양한 무

대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애너하임, 캘리포니아, 신주, 도쿄와 서울콘서트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친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스타들이 펼칠 성대한 무대 ‘SMTOWN LIVE WORLD TOUR 3 in JAKARTA’가 또한 한 번 한국문화의 커다란 확산을 기대하게 한다.

콘서트는 오는 9월 22일(토) 자카르타에서 겔로라 봉카르노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크라카타우포스코 고로 4본주 입주식



지난 7월 31일 고로 4본주(Main Column) 설치를 마무리한 크라카타우포스코(법인장 김동호)는 일관제철소의 현재 용광로 본체 설치작업이 한창이다. 4본주는 고로 본체를 둘러싸는 4개의 대형 철구조기둥으로 본체와 연결되는 주변설비를 지지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고로 4본주 볼트체결식에는 포스코 조뇌하 탄소강 부문장, 포스코건설 박희준 전무를 비롯한 포스코 패밀리 대표, 인니산업부 Budi Irmawan 국장, 투자조정청 Lily Herawati 국장, 한인회 승은희 회장, 신기업 수석부회장, 상공회의소 송창근 수석부회장, 안광진 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인니 일관밀의 성공적인 건설과 안전을 기원하였다.

인니일관 주설비인 제강, 연주, 후판공장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건물 철골 설치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정계획에 따라 기전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전소 역시 철골설치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보일러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소공장, 연료야드 등 부대설비들은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코크스공장은 지난

5월 #2 Battery의 내화물 축소를 시작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1 Battery의 내화물 축조도 시작되었다. 8월말 전체 공정율은 35%, 올해 연말이면 70% 공정을 달성은 무난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가 쥘레곤(Cilegon)시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변이 크게 변하고 있다. 한국식당 한 곳과 세 개의 한국기업이 있던 곳에 불과 1년 6개월 만에 30여개가 넘는 기업이 정착하면서 400명의 한국인이 상주하는 곳이 되었고 한국어간판과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자연스러운 곳이 되었다. 협력기업들의 투자도 속속 이어지며 제철소에 내화물을 공급하는 IPCR과 제강공정에 Mold Flux를 공급하는 스톨베르그삼일이 연관단지 부지에 공장을 착공하였고 다른 협력기업들의 후속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의 인도네시아제철소 프로젝트는 1,2단계 합하여 총 6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인도네시아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외자사업이다. 포스코는 연간 600만t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1단계 300만t 고로제철소를 2013년 11월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70대 30의 비율로 지난 2010년 8월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Krakatau POSCO의 일관밀 프로젝트 1단계가 완료되는 2013년 11월 말경이면 붉은 쇳물을 뜨겁게 쏟아내며,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가 그 위용을 당당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안증 확산시킨 한국-인도네시아 친선의 밤 행사



부산인도네시아센터(이사장 김수일)와 자카르타관광청이 공동주관하고 해피콜이 후원하는 ‘한국-인도네시아 친선의 밤’이 8월 11일 Gedung Kesenian Jakarta에서 한국대사관(대사 김영선), 자카르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12년 5월 개소된 부산인도네시아센터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한-인니의 우호증진을 위해 기획된 첫 번째 행사이다.



인도네시아 전통춤에 이어 부산문화예술단과 이현미 무용단이 부채춤, 태평무, 산조, 살풀이, 소고 등 수려한 춤사위로 한국 전통춤의 진수를 보이며 한국의 멋과 소리로 화려한 무대를 꾸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관객들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무용 공연을 보게 돼 너무 즐겁고 기쁘다. 무용수들의 우아한 몸짓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며 한복의 아름다움에 경탄을 자아냈다.



김수일 이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인적, 경제적 교류의 증대와 부산과 인도네시아 도시 간 교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인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국내기업의 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인도네시아센터는 부산외대 마인어과 교수, 주한인도네시아관광청 대표, 인도네시아 명예영사로 있는 김수일 이사장이 사재를 들여 종교·문화적 차이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하여 이 센터를 건립하였다. 2012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센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초청강연, 고국소식을 전하는 행사 등 한-인도네시아 교류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KOICA –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사후관리 컨퍼런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재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30일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KOICA-경희대학교 석사과정 사후관리 컨퍼런스 “역량강화를 통한 개발 효과성 제고 파트너십”을 개최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은 KOICA의 역량개발사업의 일환인 장기석사과정을 2002년부터 운영 중이다. 매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석사과정을 진행하여 개도국 경제성장에 주축을 담당할 경제 및 개발협력 분야 리더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번 컨퍼런스에는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대사, Bayu Krisnamurthi 무역부차관, KOICA 홍승묵 이사, 최성호 사무소장을 비롯하여 본 과정의 12개국의 졸업생 및 인도네시아 주요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졸업생 20여 명을 포함하여 8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의 첫 번째 섹션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 내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한국의 인적자원에 관하여, 두 번째 섹션은 KOICA와 세계은행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농촌 지역을 위한 역량개발 파트너십에 관하여, 세 번째와 네

번째 섹션은 KOICA Scholarship programs을 졸업한 학생들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결과 외에 향후 발전 방향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대에 따라 교육훈련분야 국제 개발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교육훈련분야에 국제 개발 협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부족하여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 훈련이 개도국에 국가 발전 전략 및 빈곤 퇴치 전략 등에 벤치마킹 대상이 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OICA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연수생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자들 간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KOICA 연수사업의 사후효과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한-인니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 간 실시해 온 KOICA 연수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량강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KOICA 석사과정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헤리티지소사이어티



한국어로 연구하는 박물관 활동 & 한국어 문화탐방

인도네시아헤리티지소사이어티(이하 헤리티지)의 한국어로 연구하는 박물관 활동은 한국인 방문객을 위한 박물관 안내 특별 프로그램이다. 방문객은 어렵지 않게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니에 거주하며 안내요원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인니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영어학습의 기회까지 가질 수 있다.

헤리티지에서 지난 2008년 1차 교육과정을 진행한 이후 4년 만에 국립박물관 한국어안내요원 트레이닝 워크숍(Museum Tour Guide Training Workshop)을 개최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9월 중순 경부터 12월까지 화요일 또는 토요일에 총 12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 3년 이상 체류한,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과정수료 후 수료증을 받고 국립박물관 안내요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참가자 첫 모임 : 9월 7일 10시, 헤리티지도서관>

또한 헤리티지 문화탐방에서는 한국어로 인도네시아 곳곳을 탐방하려한다. 영어로 그동안 헤리티지에서 진행하던 Wednesday Explorer-문화탐방을 한국어로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수진 회장은 “문화탐방 회원이 되면 소수 그룹으로 모여 평소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문화를 체험하고 인도네시아 곳곳을 돌며 평소에는 느낄 수 없

었던 인도네시아인들의 정서와 아름다운 문화를 감상할 수 있다” 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권유했다.

넝마주의마을, 보석시장, <배우는 농장> 체험, 쉐넬 지역 트레킹, 북자카르타 해변 탐방, Police Museum, 국립박물관, 바뚜 알람 등 인니의 명소와 삶의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문화탐방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며 본격적인 행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들만으로 약 1년간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헤리티지의 정기총회(2012년 9월 18일) 9시 30분, 에라스무스에서 가입서를 쓸 수 있으며, 첫 오리엔테이션은 2012년 9월 29일 (토) 10시 헤리티지도서관에서 열린다. 첫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으면 문화탐방에도 함께하기 어렵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장소를 안내하고 미리 정하며, 그에 따라 날짜와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헤리티지도서관: 센트럴스나얀 1번 건물 17층,
스나얀 소고 옆 건물 021) 572-5870
공동 회장 : 유남실 0815 8420 8949
eunice8035@hotmail.com
이수진 0816 1300 210
irenesujin@hotmail.com

2012 런던올림픽 >> 리우에서 만나요

영국의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렸던 2012 하계올림픽
17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브라질의 리우를 기약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팀코리아

이번 올림픽에선 중국과 남북한이 큰 성공을 거뒀다 - AFP통신
올림픽 메달 획득의 역사를 새로 쓴 한국축구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로 남아...
양궁과 유도 외에 구기 종목과 펜싱, 사격, 수영, 체조 등 모든 종목에서 선전

개막식	2012년 7월 27일
개최국	영국
도시	런던
표어	세대에게 영감을 (Inspire a Generation)
참가국	204개국
참가선수	10,500명
경기종목	26개 종목
폐막식	2012년 8월 12일

제30회 하계올림픽이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중심테마는 ‘친환경적인 올림픽’ 이었다. 친환경 대회장 조성을 위해 대회 관계자들은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면서 ‘탄소발자국을 줄여라’ 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올림픽 유치는 런던 내에서 경기가 열릴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시켰다는 평이다.

순위	국 가	금	은	동	메달
1	미 국	46	29	29	104
2	중화인민공화국	38	27	22	87
3	영 국	29	17	19	65
4	러 시 아	24	25	33	82
5	대 한 민 국	13	8	7	28
6	독 일	11	19	14	44
7	프 랑 스	11	11	12	34
8	이 탈 리 아	8	9	11	28
9	헝 가 리	8	4	5	17
10	오스트레일리아	7	16	12	35

이번 올림픽 개최지인 런던은 2005년 7월 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17차 IOC총회에서 모스크바, 뉴욕, 마드리드, 파리를 제치고 4차 투표 만에 개최권을 따냈다. 이로써 런던은 1908년, 1948년 대회에 이어서,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세 번이나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로 기록되었다(아테



네가 1896년, 1906년, 2004년, 세 번 대회를 개최했으나 1906년에 열린 대회는 정식대회가 아닌 올림픽 10주년 기념대회이므로 제외).

2012년 하계올림픽에 참가한 총 204개국, 만 명이 넘는 선수들은 알파벳순서로 개최식 입장을 하였다. 항상 먼저 입장하는 그리스부터 시작하여 북한이 53번째, 대한민국이 100번째, 개최국인 영국은 마지막이었다. 2011년 6월에 있었던 제 123회 IOC 총회에 의해 해체된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올림픽위원회 소속인 두 명의 선수와, 아직 국가올림픽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남수단 소속인 한 명의 선수는 올림픽기를 달고 독립선수단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26개 종목(39개 세부종목)의 경기에서 204개국이 각축전을 벌였다. 대한민국은 22개 종목에 임원 129명, 선수 245명을 출전시켜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따내 종합순위 5위로 사상 최고성적을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선수단이 당초 계획했던 ‘10-10’ (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며 스포츠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사격과 양궁은 각각 금메달 3개를 수확하며 한국의 금메달레이스를 주도했다. 사격의 진중오는 한국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물하며 2관왕에 올랐다. 양궁은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 이 종목에 걸린 금메달 4개 중 3개를 석권했다. 또 유도, 펜싱은 금메달 2개를 체조, 레슬링, 태권도는 금메달 1개씩을 수확하여 2008년 베이징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 13개 기록과 타이틀 이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끈 남자축구 대표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경기장에

서 열린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2대0으로 완승했다.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축구의 종가’ 영국을 꺾은 파란에 이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본과의 3, 4위전에서 일본을 2대0으로 완파해 한국축구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축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지난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64년만의 일이다.

대회 17일간 한국선수단을 이끈 이기홍 단장은 “원래 목표는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 10위 안에 드는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를 따내 205개 참가국 가운데 5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성원과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투혼, 정부의 지원 등 3박자의 조화를 이뤄 나온 결과” 라고 자평했다.

★ 대외 이모저모

런던올림픽에서는 기존 올림픽과 같이 28종류의 종목을 유치하려 했으나, 올림픽 유치 이틀 후에 치러진 IOC 2차 투표(2005년)에서 야구와 소프트볼이 개최종목에서 제외되었다. 두 종목을 제외시킨 후, IOC는 다른 두 종목을 올림픽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 새로 들어갈 스포츠 종목 후보는 가라테, 스쿼시, 골프, 롤러스포츠, 7인제력비였다. 이 중 가라테와 스쿼시 두 종목은 최종까지 후보에 올랐으나, 정식 종목이 되기 위한 과반수를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2012 런던올림픽은 26종목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모두 1명 이상의 여성선수를 출전시킨 것은 올림픽 사상 첫 기록이며, 여자복식 종목이 처음으로 추가된 것도 특기할만하다. 또한 테니스 혼합 복식 종목은 1924년 하계올림픽 이후 다시 정식 올림픽 종목이 되었다. 영국 총기법으로

는 불법인 여러 종목의 사격경기들은 올림픽이라는 특별 허가를 받은 후에야 진행할 수 있었다.

AFP통신은 “중국과 남북한이 런던올림픽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중국은 진정한 올림픽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섰으며 (남북)두 한국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상위 10위 안에 오른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며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없는 양궁과 2개의 금메달을 따낸 유도, 사격, 펜싱 등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금 38개, 은 27개, 동 22개 등 총 87개의 메달을 따내며 미국에 이어 종합 2위에 올랐다. 한국은 금 13개, 은 8개, 동 7개로 종합 5위에 올라 역대 원정 올림픽 최고성적을 거두었으며, 역도에서만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세계신기록까지 세운 북한은 금 4개, 동 2개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성적을 거뒀던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을 20년 만에 뛰어넘었다.

미국(1위)은 대회기간 내내 치열하게 벌였던 중국과의 금메달레이스에서 최종 승자로 남았다. 금 46개를 획득해 중국을 제치고 2008년 베이징대회에서 내준 종합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자메이카의 ‘번개’ 우사인 볼트는 100m, 200m, 400m 육상 남자계주에서 우승해 2개 대회 연속 3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으며 초기에는 여성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브루나이가 사상 최초로 여자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여성스포츠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 오심 논란

대회 개최 후 박태환, 조준호, 박주영, 신아람 등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심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박태환 선수는 자유형 400m 경기에서 부정출발로 인한 실격 판정을 받았다가 번복되었다. 7월 30일 실격 판정의 여파로 금메달 획득의 기대를 모았던 박태환 선수는 수영남자 200m 자유형 경기에서 중국의 쑤양 선수와 공동 은메달에 머물러

야했다. 박태환 선수는 ‘색깔은 금이 아니지만 올림픽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며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다.

7월 29일 조준호 선수는 남자유도 66kg 이하급 8강전에서 일본의 에비누마 마사시에게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으나, 심판위원장의 재심 요구로 판정이 번복되어 심판 전원 일치 판정패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하였다. 이미 심판진에서 주심의 판단이 끝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에서는 점수를 번복하였다. 조준호 선수는 패자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7월 30일 신아람 선수는 영국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에페(epee) 개인전 준결승에서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에 5대 6으로 졌다. 연장전 5대 5인 상황에서 종료 1초를 앞두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 상대에 찌르기를 허용해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비긴 채 경기를 마쳤다면 경기 시작 전 얻은 어드밴티지로 결승에 오를 수 있었다. 마지막 1초를 남기고 신아람은 세 번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네 번째 공격에서 통한의 공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한국 코치진이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심판진에서는 이미 주심의 판단이 끝난 상황이었으므로 점수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신아람은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패배하여 개인전에서는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하계 런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성과는 놀랄 만큼 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선진국형으로 도약한 저력은 특히 펜싱과 사격, 수영 및 체조 등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비록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라도 모두 큰 박수를 받아 마땅한 투혼의 선수,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이다.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잠을 설치며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선수들을 응원하던 기쁨과 안타까움의 런던올림픽은 막을 내렸다. 2016 하계올림픽 개최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선정되었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하며
런던올림픽이여 안녕~!**



2012 런던올림픽! 네티즌금메달도 있어요!

올림픽이 펼쳐진 17일 동안 열전을 벌였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유례 없는 오심 논란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올림픽정신을 보여주어 네티즌들의 많은 감동을 이끌어냈다.

메달 색깔과 유무에 상관없이 훌륭한 스포츠정신을 보여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네티즌이 직접 뽑은 '네티즌금메달'을 선물한다. 네티즌 금메달이벤트는 삼성그룹이 지원했다.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회기간 동안 진행된 응원이벤트에는 총 1만 3,200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네티즌금메달을 받을 선수는 ☆어이없는 실력과 판정 반복의 심리적 부담을 이기고 환하게 웃으며 은메달을 따낸 수영의 박태환 ☆교통사고후유증에도 투혼을 다한 아름다운 4위 역도의 장미란 ☆최선을 다하고도 1초 오심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린 펜싱의 신아람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동메달로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축구대표팀의 기성용 ☆서틀콕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보다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이용대가 네티즌금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이들 선수에 대한 네티즌금메달 수여는 선수들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추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 세계 신 기록 ★

날 짜	종 목	선 수	국 가	세 계 기 록
7. 27.	양궁남자개인	임동현	대한민국	랭킹라운드>699점
	양궁남자단체	임동현, 김법민, 오진혁	대한민국	랭킹라운드> 2087점
7. 28.	조정남자페어	에릭 머레이해미시 본드	뉴질랜드	예선> 6:08.50.
	역도여자53kg	줄피야 친산로	카자흐스탄	역도용량> 131kg
	수영여자개인혼영400m	예스원	중국	결승> 4:28.43.
7. 29.	수영여자접영100m	다나 볼머	미국	결승> 55.98.
	수영남자평영100m	카메론 반 더 버그	남아공	결승> 58.46.
7. 30.	역도남자62kg	김은국	북한	결승> 총합 327kg
8. 10.	육상여자4x100m계주	티아나 매디슨, 앨리슨 펠릭스, 비안카 나이트, 카멜리타	미국	결승> 40.82.
	육상남자800m	데이비드 루디샤	케냐	결승> 1:40.91.
8. 11.	육상남자4x100m계주	우사인 볼트, 네스타 카터, 마이클 프레이터, 요한 블레이크	자메이카	결승> 36.84.



와양박물관

Museum Wayang

사 공 경 / 한*인니문화연구원장

그림자를 읽는다
그림자의 움직임을 엿듣는다
그들의 몸짓에 배어드는 음악
그들의 춤에 서려 있는 영혼
몸으로 하는 사랑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
그건 모든 게 그림자 같아
아니, 사랑싸움 같아
칼로 물 베기 같아
알고 보면 그림자인 삶

그림자뿐인 생
그림자가 그림자를 읽는 밤
이런 밤엔
빛 없어도 마음에 그림자 진다
영혼의 빛만으로도
그림자의 아픔을 느낀다
어둠 전체가 그림자가 되는 밤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내가 있어야 네가 있다
아, 이 아득한 우기의 밤

* 와양은 인형을 뜻한다. 본래 관객대상이 아니라 선조의 영혼을 인형의 그림자에 머물게 하여 공양을 드리고 현세의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이다. 자바에서는 와양 꿀릿으로 공연되는 그림자극이 유명하므로 와양하면 그림자극을 통칭하기도 한다.

역사박물관 앞 파타힐라 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눈을 돌리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와양박물관 간판이 눈에 띈다. 이 박물관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 대리석 기념비가 있다. 이 기념비에는 이곳의 변천사와 1층 중앙에 있는 돌무덤에 대한 연원이 갈색 글씨로 적혀 있다. 현재의 이 건물 자체는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자카르타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념비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역사(Sejarah)

이 건물은 1640년에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가 네덜란드군인과 유럽시민들을 위해 세운 “de oude Hollandsche Kerk Old Dutch Church)” 라는 교회였다. 1733년에 수리하여 “de nieuwe Hollandsche Kerk(New Dutch Church)” 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 당시의 웅장한 교회전경이 담긴 카드를 보면 그 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1808년 지진으로 인해 교회는 무너졌고, 총독 Daendels가 그 교회를 허물었다.

1912년에 다시 지은 건물 앞부분은 네오문예 부흥기 스타일로 만들었다. 1934년에 이르러서는 Geo Wehry Company 주식회사가 창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Bataviasche Genootschap가 이 건물을 사서 과학과 문화협회를 만들었다. 1936년 8월 14일 인도 네덜란드 정강에 따라 이 건물은 땅을 포함해 문화유산이 되었다. Bataviaasch Genootschap van Kunsten en Wetenschappen 독립기관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난 후는 과학과 예술학 연구원으로 사용하

였다. 1937년에는 Stichting oud Batavia 기관에 이양하였고 동인도 식민지시대(VOC)의 사진, 가구, 돌을 전시하여 “de oude Bataviasche Museum(Old Batavia Museum)” 이라는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1938년에 세운 뒤쪽 건물은 교회를 연상시키나 단지 옛 교회 바닥 위에 세워졌을 뿐이며, 식민시대 네덜란드 가옥 모양으로 좁고 길게 전체 건물을 보수하였다. 1939년 12월 22일에 총독 Tjarda Van StarkenborchStachouwer가 박물관 “de oude Bataviasche Museum” 로 재개관하였다.

일본통치기와 그 후 인도네시아 독립혁명 시에는 이 박물관은 돌보지 않은 채 버려졌으나 1957년 인도네시아문화부가 이 건물을 소유하면서 “오래된 자카르타 박물관(Museum Jakarta Lama)”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60년 8월 1일에는 “자카르타 박물관(Museum Jakarta)” 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흘러 박물관에 대한 이양이 계속되었다. 1962년 9월 17일 인도네시아 교육 및 관광부에 이양되었고, 이때부터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는 박물관이 되었다. 1968년 6월 23일에는 자카르타 정부가 맡아 “자카르타역사 박물관(Museum Sejarah Jakarta)” 으로 이름을 바꾸며 서부 자카르타로 박물관을 이전하였다.

1974년에 개최한 “2차와양주일(Pekan Wayang II)” 행사에 참석한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 알리 사디킨(Ali Sadikin)이 와양박물관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와양을 좋아하는 행사의 위원회가 지지하여 와양박물관이 설립하게 된다. 가치 있는 수집품들은 1974년 오픈한 앞에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급히 옮겨졌고, 와양을 수집하여 마침내 1975년 8월 13일 시장 알리 사디킨(Ali Sadikin)에 의해 와양박물관(Wayang Museum)으로 개관되었다. 그 후, 2003년 전시실을 확장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박물관이 된다.

***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에서**
 온 3000개 이상의 Wayang과 또 2,000여 점의 Topeng, Wayang Music Instrument, 역사적 서류, 지도, 오래된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와양은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크게 3종류로 구분한다. 염소나 물소가죽으로 만든 와양 꼴릿(Wayang Kulit : 주로 Java스타일)은 염소 한 마리로 2개의 와양을 만든다. 와양 골렉(Wayang Golek : 주로 Sunda 스타일)은 나무로 만든 몸체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바깥을 입히고 복잡한 조각과 색으로 장식하여 만든다. 사람이 직접 나와서 분장하고 연기하는 것을 와양 오랑(Wayang Orang)이라 한다.

*** 유머가 많은 스마르:** 박물관으로 들어가면 먼저 스마르(Semara)와 동상이 보인다. 유머 있으면서 진지하게 교육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스마르의 특징이다. 스마르를 통해서 와양 공연 관람자들이 교육을 쉽고 재미있고 받아드릴 수 있다.

스마르의 외모를 살펴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성별이 남자인데 여자처럼 가슴은 풍만하다. 그것 바로 남녀를 상징한다. 위를 향한 오른 손가락은 신을 위로한다는 뜻이고 허리 뒤에 숨기는 왼손은 공평무사한 태도와 지식을

을 상징한다. 스마르는 아이처럼 머리를 묶는다. 머리를 그렇게 묶는 것은 부하를 상징하고, 스마르는 부하의 의무와 개성을 가지며 순수하게 사람들을 대한다. 또, 스마르가 걸어 다닐 때 머리가 항상 위로 향한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신을 향하여 존경해야한다는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스마르는 주로 빠랑꾸수모로조(Parangkusumorojo) 바떡 무늬를 입는다. 그 무늬는 사회정의를 상징한다. 또 통통한 몸은 인간과 생물이 살고 있는 지구를 상징한다. 스마르는 웃지만 눈은 슬퍼 보인다. 이는 인간사는 항상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 얼굴은 노인이지만 머리가 어린이와 같은 것은 노소(老少)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원래 신이었는데 인간 세상에서 내려와서 하층민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상하(上下)를 상징한다. 그런 상징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잘 듣는다면 시민이 정부의 뜻에 따른다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와양 뿌르와(wayang purwa) 전시실:** 옛날에 교회 로비이었는데 지금 라마야나(Ramayana)와 마하바라타(Mahabarata)에 등장하는 와양 뿌르와(wayang purwa: 서사시에 나오는 와양의 총칭) 캐릭터들이 유리창안에 와양 골렉





(wayang golek)으로 전시되어 있다. 크기는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자면 라마(Rama), 하노만(Hanoman), 비마(Bima), 가뽏까짜(Gatotkaca), 스마르(Semar) 등이 있다.

*** 비문공원 :** 옛 교회 마당은 바로 와양 박물관의 야외이며 거기에 묻힌 네덜란드 주지사들 이름은 왼쪽 벽에 있는 9개의 비문에 새겨져 있다. 오른쪽에 있는 1634년에 만들어진 악명 높았던 바따비아 설립자 얀 피터스존 쿤(Jan Pieterszoon Coen)의 비문은 웅장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운데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1619년 5월 30일 자야카르파를 다스린 쿤 총독의 비문과 네덜란드 총독 18명과 고위층 관리, 그들의 친구, 가족의 돌무덤이 있고 이국의 글씨로 적혀 있는 비문은 이곳을 더욱 비밀에 가득 찬 장소로 보이게 한다. 1621년에 쿤은 무너진 자야카르파 도시 파편 위에서 네덜란드 도시를 모방하여 바따비아 도시를 만들었다.

*** 혁명 와양(Wayang Revolusi) 전시실 :** 비문공원을 통해 네덜란드식민지 때 투쟁사건을 보여주는 혁명 와양 전시실로 들어갈 수 있다. 네덜란드군인과 인도네시아시민, 인도네시아 여성, 독립주역이 된 수카르노 대통령과 하타 부통령 와양

이 있다. 박스 형식으로 처리된 특이한 Wayang Revolution 8점이 전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네덜란드가 1995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에 선물로 준 것이다. 혁명 와양 밑에는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 브따위(Betawi)족 와양 전시실 :** “혁명 와양 전시실” 옆에 있는 이 전시실은 자카르타의 브따위(Betawi)족 와양이 전시되어 있다. 거기에서 브따위족에게 전해 내려온 캐릭터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 브따위족 영웅으로 알려진 ‘시 삐똥(Si Pitung)’ 과 ‘시 잠뽕(Si Jampang)’ , 또 안쥘(Ancol)다리에서 죽어 귀신이 된 ‘시 마니스(Si Manis)’ 와양이 있다. 브따위족의 ‘온델-온델(Ondel-ondel)’ 와양은 남녀로 구분되어 쌍으로 공연된다.

티크나무로 만들어진 목직 한 계단을 올라가면 유리에 그려진 와양들이 벽에 걸려 있다. 그 그림은 와양 뿌리와 이야기를 나타낸다.

*** 여러 지역에서 온 와양 전시실 :** 빠꾸안(Pakuan)왕과 총독 코엔(Coen)이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반둥에서 온 Wayang Golek, Beber Wayang, Bima Wayang Golek, Cirebon Wayang Golek, 야자껍질로 만들어진 아이들의 장난감 와양, 대나무로 만들어진 와양, 면으로 만들어진 와양, 타자치는 꼭두각시, 황금으로 된 목각, 족자까르파 왕자, 말레이시아에서 온 깃발 인형, D자 모양의 인형, Bali 목각인형, 쑈카르노와 네덜란드 사람이 만나는 Wayang Suluh, 그 유명한 라마야나, 북부수마트라 카로(Karo)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성인식이나 축제, 기우제 때 사용했던 사람과 크기가 비슷한 ‘군달라-군달라(Gundala-gundala)’ 인형이 있다.

1980년대부터 잘 알려진 ‘시 운일(Si Unyil)’ 손인형이 줄을 서 있다. 또 아들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 때 아들 대신 사용했던 와양 Si Gale Gale 등이 있다. 아들이 죽은 다음에 승천할 수 있게 ‘시 갈레-갈레(Si Gale-gale)’ 와양을 공연하는 의식이 전해 내려온다. 집 모양의 ‘후다-후다(Huda-huda)’ 와양도 있는데 그것은 자손과 며느리/사위가 고인을 위해 만들어 연주해주고, 신

게 감사드린다는 것을 상징한다. 1670년에 중국에서 온 Kanton Wayang, 왕들이 만나는 장면도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다.

*** ‘와양 꿀릿 뿌르와(Wayang Kulit Purwa)’ 전시실** : 와양 뿌르와의 가계도가 눈에 띈다. 왼쪽은 유디스띠라(Yudistira)와 크레스나(Kresna)가 거인으로 변하는 ‘뿌르와 아베안(Purwa Ngabean)’ 와양이 마주보고 있다. 가계도 오른쪽을 보면 좌우 쪽에 와양 꿀릿으로 채운 긴 복도가 있다. 가믈란 (Gamelan)도 복도 왼쪽에 전시되어 있다.

*** 외국인형 전시실** : 외국에서 선물로 받은 각종 인형이 있어 더욱 이채롭다. 프랑스, 캄보디아, 인디아, 중국, 베트남, 태국, 프랑스, 영국에서 온 인형들이 유리 장에 걸려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로 전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와양도 오른쪽 벽에 걸려 있는 유리관에 붙어있다. 중국의 ‘와양 삐떼히(Wayang Potehi)’ 라 불리는 인형도 전시되어 있다. 피노키오도 있어 동화의 나라에 온 것 같다.



*** ‘와양 발전(Perkembangan Wayang)’ 전시실**: 외국 와양과 인형 전시실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전시실은 와양 뿌르와 이야기와 관계없는 다른 스토리가 있는 와양을 전시한다. 예를 들자 기독교의 교훈과 관련된 ‘와양 와르유

(Wayang Wahyu(계시))에는 아담, 이브, 사탄의 와양이 있다.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투쟁 와양도 전시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시 칸질(Si Kancil)’은 우화와 관련된 와양이다.

또 다른 전시관에는 어린이 놀이로 쓰는 마른 풀로 만들어진 와양, 중국의 와양 꿀릿, 아연으로 만들어진 ‘와양 생(Wayang Seng)’이 보인다.

*** 1층으로 내려가는 복도의 왼쪽 벽에는**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와양 끌리틱(Wayang Klitik)을 전시한다. 나무판자가 서로 부딪치면 ‘딕 딕(Tik Tik)’ 소리가 나기 때문에 ‘끌리틱’이라고 칭한다. 그 다음에 각양각색 가면, 와양 뿌르와 캐릭터 가면들이 벽에 걸려 있다.

긴 복도 끝 앞에 취임 비문이 벽에 걸려 있고, 박물관이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여자 온텔-온텔 인형이 서 있다. 온텔-온텔 인형 왼쪽에는 와양 꿀릿을 만드는 과정을 전시한다. 자세하게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와양 뒷부분 축을 물소의 뿔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 바로 맞은편에 대나무로 만들어진 감방(Gambang) 악기가 3개, 옆에는 기념품 가게 있다. 한 와양을 만드는 데 얼마나 섬세하게 와양의 부분 부분을 세분해야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와양도 있다.

살아있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공연이 있으며, Gamelan 악기와 스크린, 조명시설이 있다. 번사나 라이브 쇼를 만들 수 있는 달랑(dalang)이라고 부르는 사람에 의해 공연되고 기운 찬 달랑은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무생명의 와양에 아름답고 빠른 손놀림으로 타오르는 생명력과 따뜻한 체온을 불어넣는 달랑. 그는 진정한 예술가였다.

전통문화는 결국 고정된 것이 아니다. 빛과 그림자로 슬픔은 슬픔대로 떨어 흘러내리고 기쁨은 기쁨대로 가게 하라. 그림자여 그렇게 떠돌아라. 무언의 언어로 노래 부르라. 무성영화를 보는 듯 한 그리움으로 고달픈 마음을 채충전할 수 있는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



와양 공연은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한다. 매주 공연하는 와양 종류가 다르다.
입장료만 내고 와양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 첫째 일요일 : 와양 꿀릿 뿌르와 브파위 (wayang kulit purwa betawi)
- ◆ 둘째 일요일 : 와양 골렉 뿌르와 (wayang golek purwa)
- ◆ 셋째 일요일 : 와양 꿀릿 뿌르와 (wayang kulit purwa)
- ◆ 넷째 일요일 : 와양 오랑 (wayang orang)

Jl. Pintu Besar Utara No.27 Tel:6929560, 6927289 입장료 : 1000Rp

행사안내 (사)한*인니문화연구원 www.ikcs.kr

개원 1주년 기념 초청음악회 - 누산따라에서 한반도까지 -

- 일시 : 2012년 9월 16일 오후 4시 ~ 6시
- 장소 : Erasmus Huis (네덜란드대사관 문화홀)

Jl. HR.Rasuna Said Kav. S-3, Kuningan, Tel: (021) 524 1069
10만루피아 / 1인 (판매처: 한*인니문화연구원)
[후원] KMK Group 회장 송 근 / 완구협회장 이종현

제21회 열린강좌 - 지도자의 역할

- 1강 : 우리나라 선거제도 : 설태선 선거관
- 2강 : 유도요노 정권의 서막 :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

일시 : 2012년 9월 22일(토) 오전 10:00 - 12:00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성당 맞은편 Graha STK 306호. ☎ 021. 7883. 9597

Jl. Taman Margasatwa, no.3, BUSWAY SMK 57 Ragunan, Jaksel.
soen-id@hotmail.com / apakabarindonesia@hotmail.com

JKS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베트남 문화탐방



초등학생 24명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24(화)부터 7.30(월)까지 교장선생님, 인솔교사와 함께 베트남 문화탐방을 다녀왔다. JIKS 초등학생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탐방에서는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정희택)도 방문하여 앞으로의 적극적인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24명의 JIKS 참가학생들은 6박 7일 동안 호치민시에서부터 베트남 중간에 위치한 후에시까지 긴 여정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소화했다. 호치민시에서는 구찌터널, 전쟁박물관, 대통령궁, 노트담성당, 중앙우체국 등을 방문하였고, 무이네 해변에서는 처음 경험해 보는 사막에서 모래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트랑을 거쳐 호이안까지 장장 11시간의 슬립핑 버스 여행은 학생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으며 베트남 옛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시에서는 유럽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구조의 여러 황릉을 관람하였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궁금한 것들을 현지 전문안내인에게 질문하는 기회가 많아 영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학생들은 호기심과 감탄 속에 7일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일정에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문화탐방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등학교 신관 준공식 안내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재단 및 교민들의 후원으로 시작한 신축공사가 착공한지 1년 반 만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준공기념행사와 더불어 비전선포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뜻 깊은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14:00~16:00, 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신관 내려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재단이사장 승은호 · 교장 선종복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

박 용 희 / 한인뉴스 학생기자

**학교는 오직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곳**



학기 초 자카르타국제학교(이하 지스) 학생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동아리(클럽) 활동이다. 현재 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는 50가지가 넘는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동아리는 봉사동아리(Service club)이다. 나머지는 예체능, 문화, 국가별 동아리들이 있다. 지스는 학생들의 교과적인 부분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특히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지니는 것을 중요히 여긴다. 학교에 존재하는 약 25가지의 봉사동아리는 학교의 취지와 부합하여 좋은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봉사동아리의 수는 적었고, 정확한 목표가 없었고, 학생들의 참여 또한 낮은 동아리 수준 때문에 부족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봉사동아리가 학교의 목표를 실현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을 알고 난 후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학교의 지원 후 봉사동아리들은 각자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 개성 있는 동아리로 발전했고, 학생들은 봉사동아리들이 제시하는 사실적인 계획에 적극 참여했다.

예를 들어 Medical Mission Club이라는 동아리가 있다. 이 동아리의 목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동아리인 Luar Biasa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적, 인성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목표이다. 이처럼, 동아리들은 각자 매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학생들은 평범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찾아서 참여한다. 학생들의 진실한 참여는 동아리 활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도 인성적인 계발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 봉사동아리 외에도 예체능, 문화체험,

국가별 동아리들이 있다.

예체능 동아리는 봉사동아리 다음으로 수가 많다. 지스는 예체능동아리들이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학생은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낸다. 또한, 예체능동아리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요약하자면 암벽등반, 크리켓, 컨디셔닝(기초체력), 창작, 춤, 요가, 미술, 음악 등이 있다. 국가별 동아리들도 매우 참여도가 높은 동아리 중 하나이다. 현재 지스에 있는 국가동아리들의 국적은 프랑스,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일본, 남미, 그리고 한국이다. 국가동아리에서는 한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있는 지스에서 다른 문화의 체험은 상대를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도록 도와준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은 대학진학에도 도움을 준다. 현재 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교외활동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에 이루고 싶은 뜻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므로 대학에서도 좋게 평가한다. 동아리들의 높은 수준,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학생들의 높은 참여로 지스 학생들은 올바른 인성을 가질 것이다. 지스가 학생들에게 교과 외 활동을 장려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학교는 오직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곳이 된 것을 강조한다.



속담으로 재밌게! BAHASA INDONESIA

어느덧 9월입니다. 계절 없이 더운 나라에 살면서도 해마다 9월이 되면 가을을 느끼는 이 마음, 우리나라 사계절에 길들여진 탓이겠지요. 황금빛 밀밭을 보면 금밭의 내가 생각날 거라던 어린왕자의 여우처럼. 그리고 대중가요 같은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사는 곳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박정자 / 한인뉴스 편집장

1

Garam di laut asam di gunung bertemu di belanga. 바다의 짠맛(소금)과 산의 신맛(산)이 한 냄비에서 만난다. 만나야 할 사람이면 반드시 만난다는 말이 생각나는 속담입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만나 이웃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또한 어떤 이유로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정작 한국에서는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깝게 지내다가 문득 참, 대단한 인연이야, 하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짠맛과 신맛이 적당히 어우러져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듯 우리의 만남도 분명 멋진 만남입니다.

단어의 뜻과 예문>

garam : 소금

garam bata(an) 돌소금, 덩어리소금 garam dapur 취사용소금 garam hancur 고운소금

laut : 바다

bintang laut 불가사리 biru laut 바다색 burung camar laut 바다갈매기 ganggang laut coklat 미역(rumput laut 해초) kerang kerangan laut 조개류 makanan hasil laut 해산물 laut lepas 공해 pelabuhan laut 항구 seberang lautan 바다저편, 해외tepi laut 물가, 해변

asam : ① 시큼한, 신(맛) ; ⑤kecut /Cuka asam. (초는 시다)

② 언짢은, 상쾌하지 않은 / Dari pagi kamu bermuka asam aja, tentu ada hal yang mendongkolkan hatinya. (아침부터 언짢은 안색이군, 분명히 화나는 일이 있는 게야)

asaman 절임, 피클 (mengasamkan 통조림으로 만들다, 보존하다)

sayur yang diasamkan 김치, zat asam 산소

gunung : 산, 산악

Gunung gemunung (산맥)

bergunung-gunung 산지의, 산이 많은

gunung-gunungan 더미, 언덕, 둔덕

gunung api 화산, Gunung mati (사화산)

pendakian gunung 등산, sela gunung 산길

bertemu [어근: temu] : ① 만나다, 마주치다 ; ⑤berjumpa,bersua /Saya bertemu dengan dia. (나는 그를 만났다), Sampai bertemu lagi. (안녕)

② 대면하다 ; ⑤bersemuka /Perempuan itu ingin bertemu dengan adiknya. (그녀는 동생을 만나고 싶어한다)

③ 일치하다, 조화하다 ; ⑤sesuai, cocok / Perkataannya tak bertemu dengan perbuatannya. (그의 말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발견되다, 나타나다 ; ⑤mendapat, terdapat, ada /Mungkin itu hilang, tiada bertemu lagi. (그것은 분실되었는지 다시 찾을 수가 없다)

⑤ 연결되다, 하나가 되다 ; ⑤menjadi satu

⑥ (재난, 재앙 따위를) 당하다, 겪다 /bertemu dengan bahaya maut (죽음의 위험을 겪다), bertemu belakang (등을 돌리다, 냉대하다), bertemu muka (대면하다)

belanga : 질그릇, 냄비

2

Membuang garam ke laut. 바다에 소금뿌리기. 아무리 힘이나 비용을 많이 들여도 들인 보람이 없는 헛된 일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비슷한 우리 속담 뭐가 있을까요. 밀빠진 독에 물 붓기. 쇠귀에 경 읽기, 한강에 돌 던지기... 그렇지만 외국어공부만은 바다에 소금뿌리기처럼 밀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해야 한다는 생각! 동의하시죠?

단어의 뜻과 예문>

membuang[어근: buang] : ① 던지다; ⑤melemparkan /Anak nakal itu membuang bola kepada kakiku.(그 개구쟁이가 내 발에 공을 던졌다)
② 버리다, 팽개치다 /Ibu saya membuang pakaian yang tidak dipakai lagi.(어머니는 입지 않는 옷을 버리셨다)
③ 없애다, 지우다 /Koma di dalam kalimat ini baik dibuang saja.(이 문장에서 쉼표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membuang-buang (시간, 힘, 돈 따위를)허비하다, 낭비하다

3

Ingin hati memeluk gunung, apa daya tangan tak sampai. 마음은 산을 껴안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다. 마음만 앞서는 사람, 말만 앞서는 사람, 행동만 앞서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 다음에 말이 따라 오는 사람,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단어의 뜻과 예문>

ingin : 바라다, 원하다, 희망하다 ;⑤hasrat, hendak, mau, harap, suka /Saya ingin pergi sekarang.(나는 지금 가기를 원한다), Berapa tarif yang anda inginkan?(가격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hati : ① (體)간장
② 가슴 ;⑤dada
③ 마음, 정신, 감정, 기분 ;⑤batin, perasaan, nurani, isi
④ 심장 ;⑤jantung
⑤ 흥미, 관심 ;⑤minat

hati-hati 조심하는, 조심성 있는(waspada, awas), hati emas 친절함, 호의적인(baik hati) hati nurani 양심, 진심

memeluk[어근: peluk] : 포옹하다, 껴안다
memeluk dengan penuh kasih sayang(사랑스럽게 껴안다)

daya : ① 힘, 능력 ;⑤kekuatan, tenaga
② 영향, 감화력, 작용 /daya kebudayaan barat(서구문명의 영향)
③ 노력, 분투, 수고 /Tiada berhasil segala dayanya.(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④ 기지, 재치, 수완 ;⑤pikiran /Orang itu sudah habis segala dayanya.(그 사람은 재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tangan : ① (體)손
② 팔 ;⑤lengan
③ 힘, 세력, 영향 ;⑤kekuasaan, pengaruh, perintah /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ada di tangan rakyat.(국가의 통치력은 국민의 손(힘)에 달려있다), tangan baju(소매), tangan besi(강한 또는 혹독한 힘, 작용), Aaya saya memerintah dengan tangan besi kami.(아버지는 우리를 엄하게 다스렸다)

sampai : ① ~까지 ;⑤hingga /Kanak itu dapat menghitung dari satu sampai sepuluh.(그 아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셀 수 있다), sampai sekarang(지금까지)
② ~할 때까지, ~도록 /Paman saya bekerja sampai larut malam hari ini.(삼촌은 오늘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③ ~(에)까지 /Siswa-siswi berjalan sampai sekolahnya.(학생들은 그들의 학교까지 걸어갔다)
④ 도착하다 ;⑤tiba /Kami sampai pukul 6pagi=pukul 6pagi kami sampai.(우리는 아침 6시에 도착했다)
⑤성공하다, 달성되다 ;⑤tercapai, terlaksanakan /Maksudnya sampai juga.(그의 의도는 달성되었다)
⑥ 충족되다, 충분하다 ;⑤cukup /Pendapatnya tidak sampai.(그의 소득은 충분하지 못하다)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

서 미 숙 / 수필가 gaeunsuh@hanmail.net

어디선가 다듬이소리가 들린다. “또닥 또닥 딱딱 따다닥!” 일정한 리듬이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고요한 새벽을 깨우고 있다. 도심의 아파트숲에서 이 시각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날까? 의아하고 신기함으로 머리를 어지럽히던 잠이 싹 가시며 슬며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귀를 세웠다. 순간 그 소리는 뚝 멈춰지고 사방은 다시 고요 속에 묻혀버린다. 분명 환청은 아니었는데…… 꿈속의 소리가 나를 현실로 깨우는 소리였다. 분명 생생하게 내 귓가에 들렸는데, 그렇게 연신 되풀이하면서 머리 속은 온통 내 어머니의 다듬이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셨고 보기 드물게 인텔리 교육을 받고 시집을 오신 터였다. 오랫동안 학교에 재직을 하셨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와 그로 인해 살림을 도맡아하셨던 할머니와는 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으셨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서 돌아오신 후 괜한 할머니의 불만이 터질 때마다 어머니는 묵묵히 빈방에 들어가셔서 다듬이질을 했다. 모아 놓은 빨래를 다듬으면서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다듬었다. 그랬기에 어머니는 다듬이돌과 다듬이방망이를

무척이나 아꼈다. 볼품은 없지만 매끈하게 다듬어진 길쭉한 돌과 윤기가 자르르 도는 불그스레한 나무방망이는 학교와 집안 살림을 병행했던 힘겨운 어머니의 삶을 다스리는 마음의 악기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께서 안 계신 시간이면 어머니가 혼자 빨래를 다듬으시던 빈방에 들어가 매끈한 다듬이돌에 맨발로 올라가 ‘폴짝폴짝’ 뛰어보곤 했다. 어머니의 마음처럼 촉감이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 때마다 어린 마음에도 여자로서 어머니의 고된 심정을 어렴풋이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같다. 할머니께서 모아 놓으신 풀 먹인 이불호청을 잘 접어서 반듯하게 다듬이돌 위에 올려 놓고 일정한 리듬으로 방망이질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참 보기가 좋았다.

‘또닥또닥’ 거리는 그 소리는 분명 내게는 어머니가 들려 주시던 자장가 소리와도 흡사했다. 다듬이질을 하는 어머니 옆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쫓아거리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다가 어머니 옆에서 곧잘 잠이 들기도 했다.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는 매번 달랐는데, 다듬이질을 시작하면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춤을 추듯 어



머니의 모습은 편안하게 보였고 미소를 머금은 듯한 어머니의 표정에서 안도와 평온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할머니에 대한 원망과 이해,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려는 어머니의 애달픈 몸짓이었다. 살림 신경 쓰라, 학교 출근 하라,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엄격한 할머니, 그리고 자식들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고단한 심신이 그렇게 다듬이질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식구들의 행복과 평온함을 비는 어머니의 염원까지도 모두 들어 있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떠나와 살게 되면 그리움의 열병을 앓는가보다. 더욱이 감성적이고 정이 많은 성격인 나는 유난히 그러하다. 내 고향의 풍요로운 들뜰에 비해 때때로 낯설게만 느껴지는 타국의 산야는 열기에 지친 초목조차 애잔하게 느껴지고 고국의 하늘을 바라보는 내 모습도 때때로 처연하게 느껴진다. 따뜻한 남쪽나라이건만, 내 고향의 가을이 나비춤을 추며 내 시야로 날아들 것만 같다. 열대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신데 고향 정취의 서정이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을 사로 잡는 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득한 고향의 향수로 이끌려간다. 내 전원 교향곡을 농칠세라 서둘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도 귓전에 불러 모은다. 오랫동안 그리웠던 소리, 답답하고 막혔던 숨이 한꺼번에 트이는 느낌이다.

“또다 또다 딱딱 따다다” 간격과 높낮이를 조정하며 두드렸던 다듬이소리는 한국의 정서를 송두리째 담은 멋과 운치가 스며있는 참 아름다운 우리의 가락이다.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정겹고 친숙하게 귀에 익은 소리, 평온하고 차분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다듬이질은 화나 근심이나 미움을 모두 내려놓게 한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거나 정성을 쏟지 않으면 방망이는 옷감을 빗나가 돌을 맞추게 되고 박자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다듬이질이나 시집와서 보았던 틈만 나면 제기를 닦고 문지르시던 시어머니처럼 나도 내 마음을 달래줄 그 무언가가 절실했던 것 같다.

그래서일까? 시대가 바뀐 지금은 다듬이질처럼 약기를 두드리며 마음의 여정을 달래는 사람이 부

럽기도 하다. 가끔씩은 허전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을 붙잡고 보듬어 줄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평정이 되고 우리 삶의 균형이 다듬어 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 친정 어머니에게 다듬잇돌과 다듬이방망이는 단순한 가제도구는 아니었다. 어머니의 희로애락 인생을 지탱해 주고 함께했던 동반자였다. 가족들을 위해 스스로의 인생을 슬기롭게 조율하시고 희생과 정성을 다하셨던 어머니, 그 시대 어머니상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내 어머니가 한없이 자랑스럽다. 어머니의 한과 쌓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준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다듬잇돌이야말로 내 어머니와 또 그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신주단지 대접을 받아 마땅하다.

잘 조화된 다듬이소리는 참 청아하다. 그 소리에서 얼룩지고 웅어리진 감정을 순화시킨다. 어찌면 예술이 지닌 순수하고 아름다운 숨겨진 끼를 발견하는 것만 같다. 갈등도 불화도 모두 포용하고 보듬을 줄 아는 사랑도 배운다. 불행도 아픔도 몰아내는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어찌면 늘 부딪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사와 닮아있다.

지금도 멀리서 낯익은 고향의 소리가 들려온다. 무더웠던 여름날의 열기로 잘 익어가는 가을의 햇살처럼 따사로운 어머니의 숨결과 함께 또다다다 주름진 삶을 다듬는 다듬이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 오는 듯 하다. 가끔은 다듬잇돌을 베개 삼아 누워 낮잠이라도 청하면 그 속에 숨어 있을 정겨운 소리가 아스라히 전해져 올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소리는 변함없이 내 가슴속에 고즈넉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질병변화와 대처

박진원 / 아름다운병원 원장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양상도 함께 변화를 하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질병들은 우리의 삶과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된 질병의 역사를 통해 현재 한국인을 괴롭히는 대표질병을 살펴보고 이에 대처함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 보려합니다.

1950년대에는 가장 위험 질환은 결핵이었습니다. 결핵 환자 수는 130만 명으로, 연간 4만명이 결핵으로 사망하였습니다. 1960-70년대 때에는 콜레라와 뇌염 등의 전염병으로 진단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기생충 감염률은 9.5%에 육박하여 초등학교에서 구충제를 먹던 기억들이 50대 분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 후 생활이 나아지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암, 당뇨, 뇌, 심혈관계 질환 등 5대 사망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57%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인은 어떤 질병으로 삶이 고달프고 제 수명을 살지 못하게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울산의대, 서울의대,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우리나라 인구의 2.5%인 120만 여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적 조사한 ‘한국인의 질병 부담(Burden) 2005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의 질병 발생 순위로 보면 1위는 당뇨병입니다. 2위는 뇌졸중, 3위 천식, 4위 위·십이지장 궤양, 5위 심근경색증 순입니다. 그 다음이 간경

화·류머티스관절염·우울증·간암·위암·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 순입니다. 물론 암(癌)을 모두 합치면 당뇨병을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질병 부담’이 높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걸리고, 그것으로 일찍 죽을 수 있으며, 살아있어도 질병 후유증과 장애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2004년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 각종 암은 지난 80년대부터 20년이 넘게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동의 1위 질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한 부담은 직접 의료비용과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합쳐, 현재 14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1년치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암과 함께 한국인을 괴롭히는 또 다른 대표 질병은 당뇨병입니다. 최근 국내 몇몇 예방의학연구팀에 의해 발표된 ‘한국인 질병부담 보고서’의 조사 결과,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환자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1위로 당노가 선정되었습니다. 당노는 실명, 족부궤양, 만성신부전 그리고 뇌, 심혈관질환 등 각종 치명적 합병증의 기저질환이 돼,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당노 환자는 500만 명에 가깝고, 증가속도도 빨라,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 전염성질환에서 벗어나 암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21세기한국인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를 통해 알아보며,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병부담 연구는 흡연이나 대기오염과 같은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로부터, 뇌졸중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환의 질병부담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와 같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 한국인의 질병부담을 전반적으로 조명한 연구로는 2002년도에 측정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등록된 국민들 중 2.53%에 해당되는 1,209,693명을 연령별, 성별, 지역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층화 추출하여, 1998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추적 조사하였습니다. 조기 사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를 이용하였고 질병의 발생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되, 의무기록 조사를 이용하여 청구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질환 보유 여부를 판정하였다. 질병분류는 기본적으로는 WHO의 질병부담 연구에 기반하였지만, 일부 국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질환은 세분화되어 19개의 질병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질병에 대한 장애가중치 역시 국내 전문가들이 재평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02년 이 연구에서 21개 질병군으로 구분할 때 질병부담의 순위는 암(10만 명 당 1,525), 심혈관계 질환(10만 명 당 1,492), 소화기계 질환(10만 명 당 970), 당뇨병(10만 명 당 990), 호흡기계 질환(10만 명 당 95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손상을 제외한 개별 질병의 질병부담을 측정한 결과 당뇨병, 뇌혈관 질환, 천식, 소화성궤양, 허혈심장병, 간경화증의 순으로 질병부담의 순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에는 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질병부담 측정이 이루어 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의 주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률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10대 질병부담요인은 간경화증, 뇌혈관질환, 당뇨병, 허

혈심장병, 천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결과와 비교하면 당뇨병의 순위가 3위로 하향한 반면, 간경화증의 질병부담이 1위로 측정되었습니다. 간경화증 외에도 질병부담의 순위가 높아진 질병으로는 허혈심장병, 간암, 만성폐쇄폐질환, 위암 등이 있으며, 반면 당뇨 외에 천식, 소화성궤양의 순위는 낮아졌다. 그러나 천식과 소화성궤양을 제외한 다른 질환은 모두 질병부담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폐쇄폐질환, 허혈심장병, 천식 등이 주요 질병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와 비교할 경우 뇌혈관질환, 만성폐쇄폐질환, 허혈심장병 등의 순위가 상승한 반면, 당뇨, 소화성궤양, 천식 등의 순위는 하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9988234’ 라는 암호 같은 숫자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 2~3일만 아프 뒤 사망(4)’ 하고 싶다는 소망이 농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9988234’ 는 그야말로 소망 일뿐입니다. 한국인은 2~3일이 아닌 평균 11년이나 병을 앓다 사망합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5세 남성의 ‘기대여명(餘命)’ 은 32.6년, 45세 여성은 38.6년입니다. 기대 여명대로 산다면 45세 남녀는 한국인 평균수명(남 75.74세, 여 82.36세)보다 2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연령별 기대여명은 40세 남성 37.2년, 40세 여성 43.4년, 50세 남성 28.2년, 50세 여성 33.9년, 60세 남성 19.9년, 60세 여성 24.6년입니다.

기대여명에는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세월만큼 팔팔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 은 남성 67.4세, 여성 69.6세입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기간을 평균수명에서 뺀 수치로 평균수명과 약 1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대로라면 45세 남성은 기대 여명 32.6년 중 22년만 ‘팔팔하게’ 살고, 나머지 10년은 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하며, 여성이 병으로 고통 받는 기간은 12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생애 마지막 11년 동안 주로 어떤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종합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입원하게 되는 주요 질환 순위를 10위까지 뽑고, 이 병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고혈압, 당뇨병, 치질, 설사 및 위장염은 순위에서 제외했습니다.)

1. 백내장

65세 이상 연간 입원 환자 수는 117,503명입니다.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합니다. 45세부터 안과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특히 흡연자나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백내장이 더 빨리 오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병 초기엔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점안액으로 진행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심해지면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2. 10대 암

연간 72,24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26.1%(남자 27.9%, 여자 23%)입니다. 65세 이상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고, 대장암, 간암, 췌장 및 담도암 발병률도 이 연령대에선 다른 암에 비해 높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초기 암의 완치율이 70~95%까지 높아졌으므로 45세 이후에는 매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진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3. 골절

연간 입원환자 수는 55,822명입니다. 골절이 가장 많은 부위는 넙적다리뼈(고관절), 허리뼈, 골반 등입니다. 골절 예방을 위해선 젊었을 때부터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유제품(우유·버

터·치즈) 등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면 노년 근육 감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를 높이려면 걷기, 달리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멸치 등 뼈째 먹는 생선, 녹황색 야채, 과일 등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하며, 골밀도를 높이는 비타민D 합성을 위해 자주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4. 뇌졸중

연간 입원 환자수는 52,439명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뇌경색) 터지는(뇌출혈) 뇌졸중은 나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흡연, 과음 등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조절과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은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사 지시대로 약물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5. 심장질환

연간 입원 환자수는 46,167명입니다.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동물성 지방 섭취),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건강에 나쁜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노년기 심장병 예방의 핵심입니다. 평소 가슴 통증이 2~3분 지속되다 안정을 취하면 없어지는 협심증 환자가 통증이 30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으면 심근경색증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6. 디스크 등 척추질환

연간 입원 환자수는 32,445명입니다. 디스크(추간판)는 20대 초반부터 퇴행(退行)이 시작되지만 약 45세쯤부터 그 속도가 빨라지며, 65세쯤 되면 말랑말랑하던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척추 자체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척추관협착증 등 척추질환이 잘 생깁니다. 척추에 구조적 문제가 생겨도 척추를 지탱하는 허리근육이나 인대 등이 튼튼하게 척추를 받쳐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젊었을 때부터 빨리 걷기, 수영, 등산, 허리근육 강화 체조 등으로 ‘허리 힘’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7. 폐렴

연간 입원 환자수는 2만8378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은 심한 감기나 독감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감기에 걸리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성폐렴은 처음엔 일반 감기처럼 기침만 심하게 나오다가 차츰 열이 37~39℃까지 오르고 누런 가래와 흉통이 생깁니다. 예방을 위해 노인은 평소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폐렴이 옮기 쉬운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 충분한 영양섭취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환절기 이전에 폐렴구균 및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도 필요합니다.

8. 무릎질환

연간 입원 환자수는 19,342명입니다. 오랜 세월 관절이 서로 부딪혀 마모가 된 상태가 퇴행성관절염입니다. 관절염 초기엔 진통제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인공관절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는 2003년 18,568명, 2004년 21,621명, 2005년 26,268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릎관절질환을 예방하려면 무거운 물건 들기, 축구, 테니스, 달리기, 등산과 같이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운동 대신 하중이 실리지 않거나 적게 실리는 수영, 걷기, 자전거타기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9.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연간 입원 환자수는 17,564명입니다. 기도가 점점 좁아져 숨쉬기가 힘들어 지는 병입니다. 병 초기엔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병이 악화되면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일상생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담배입니다. 45세 이상 성인 8~10%가 앓고 있는데,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 4명 중 1명이 COPD 환자로 추정됩니다. 병이 워낙 서서히 진행되므로 환자가 알아채기도 힘들고 ‘숨이 차다’ 싶으면 벌써 폐기능의 50% 이상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예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이며, 간접흡연도 피해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폐가 작아 담배를 피우

면 남성보다 COPD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흡연자는 정기적으로 가슴 X선 촬영, 폐기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담석증

연간 입원 환자수는 12,321명입니다. 비만, 여자, 다산(多産)이 중요한 발병요인입니다. 갑자기 체중을 많이 줄였거나,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거나, 주로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 예방을 위해선 서구식 식사보다 밥과 서너 가지 반찬을 골고루 과식하지 않고 먹는 한식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노른자, 오징어, 새우, 장어 등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자반, 장아찌, 라면, 햄 등의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서 물으시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입니다. 단순한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환을 찾는 것은 매우 불충분합니다.

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암의 종류	검진대상	주기	방법
위 암	40세 이상	2년	위내시경
간 암	B.C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및 간경화	6개월	간초음파 + 혈액종양지표
대장암	50세 이상	3년	대장내시경, 1년마다 대변잠혈검사
유방암	40세 여성 이상	1~2년	유방촬영술 + 진찰, 30세 이상 매월 유방 자가검진
폐 암	45세 이상 흡연자 또는 가족력	1년	흉부 엑스레이 저선량CT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1년	자궁경부 질세포 검사

당뇨환자는 눈·신장·발 3대 합병증 체크가 필요합니다. 8시간 이상 밥을 굶은 공복혈당이

110~126이 넘으면 통상 당뇨병으로 진단됐지만 최근에는 공복 혈당 정상기준이 100이하로 낮아졌습니다. 당뇨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혈당 체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자는 망막증·신부전증·말초신경염 등 3대 합병증을 조기 발견, 치료해야 합니다. 실명(失明)의 최대 원인인 당뇨망막증 예방을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만성신부전증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변검사가, 발과 손의 말초신경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신경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선 경동맥 초음파, 협심증 운동부하 검사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뇌졸중 특징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환자 평균 연령이 53세일 정도로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도 많으며 ▲여성 환자가 남자보다 60% 가량 많으며 ▲뇌출혈보다는 뇌혈관이 동맥경화 등으로 막히는 뇌경색이 약 5배 더 많고 ▲증상 없이 우연히 CT·MRI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사람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목 부위의 경동맥 상태를 파악하는 초음파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가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으면 뇌졸중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심장의 관상동맥 동맥경화 여부를 알아보려면 달리기를 하면서 심전도를 체크하는 운동부하 검사나 관상동맥 모양을 보는 ‘심장 CT’도 시행됩니다.

위 내시경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속쓰림 증세가 있다고 임시적으로 소화제나 제산제만 복용할 경우 위·십이지장 궤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궤양으로 알고 치료받았다가 나중에 위암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는 암이므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위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염환자는 간경화·간암 집중 검진을 해야 합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의 약 10%는 만성 간염이 되고, 또 그 중 약 10%에게 간경화 또는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염보균자는 1년에 한 번 ‘간 초음파’와 간기능 검사를 받아 자신의 간이 만성간염으로 발전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만성간염 환자는 검사 간격을 3~6개월로 더 촘촘히 하고 추가로 혈액으로 간암 지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경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초음파 외에 추가로 정기적인 복부 CT 검사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천식, 노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조심해야 합니다. 천식을 방치할 경우 알레르기염증으로 기관지가 점점 더 손상돼 폐기능 장애를 앓을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과 기침, 숨 쉴 때 ‘휘휘’ 소리가 나는 천명 등이 있는 전형적인 천식 증상이 없더라도 기침이 지속되는 감기를 자주 앓거나, 감기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될 때에는 천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천식알레르기 검사 등 정밀진단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호흡곤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와 가슴엑스레이·흉부 CT 등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저선량 CT가 권장됩니다.



아름다운 병원 박진원 원장님의 연재는 이달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애독해주신 분들과 건강정보를 주시기 위해 애쓰신 박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분쟁해결 절차법 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의 근거법

노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다

- 1.1. 산업관계(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2호
- 1.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 1.3.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
- 1.4.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1992년 법률 제3호
- 1.5. 민사 소송법
- 1.6. 상기한 모법에 근거하여 발표된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등 제 시행규칙

2. 노동 분쟁의 구분

노사분쟁의 발생이유는 노사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며,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에서는 노사분쟁을 권리에 관한 분쟁,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권리에 관한 분쟁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주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자진사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3주 첫날에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계속 근무를 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이다. 이는 관계 법조항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일간 계속 무단결근하면 사용자가 즉시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했

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을 했으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주장이 적법하다(노동법 제168조 1항).

4.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많이 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5.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은 통상 고용관계 종결 방법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여부와 고용관계종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고금 등의 액수에 대한 분쟁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노동법에서 해고는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간에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7. 분쟁해결절차 준수 원칙

분쟁해결의 절차는 대별하여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하여 해결하는 단계, 민간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혹은 노동부의 조정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노동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대법원에 상고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합의 또는 판

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하는 단계,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선행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후행 단계에서 해결을 불허하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 절차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노사 간에 직접해결이라는 첫 계단에서부터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계단까지 한 계단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8. 노사 간 직접 협상 분쟁 해결

- 8.1.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사 간에 직접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 8.2.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서를 체결하고,
- 8.3.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서를 받아,
- 8.4.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 8.5.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 8.6. 협상을 시작하지 30일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협상 요구에 30일 간 불응하면 노사 중 한 측이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청구한다.

9. 노사분쟁해결방법 합의 통보

- 9.1.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할 때에 노사 양측은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인지 합의하고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 청구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9.2. 노사가 합의된 중재 방법을 상기한 7근무일 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 노동국은 분쟁 해결을 지방 노동국 소속 공무원인 조정관/Mediator에게 넘겨 Mediasi(노동국 조정)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 9.3. 상기한 민간인 조정(Konsiliasi), 민간인 중재(Arbitrasi) 혹은 노동국 조정(Mediasi) 방법으로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중 어느 측이나 노동법원에 정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0. 관할권

Konsiliasi(민간인 조정)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할하며,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이익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노사 간의 모든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11.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 11.1. 지방 노동국 소속 조정관/Mediator 에게 노사분쟁 해결이 배정되면 조정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최대한 내에 조정회의를 소집해야한다.
- 11.2. 조정관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1.3.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 11.4. 조정관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 11.5.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 11.6.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 11.7.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 11.8.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여 조정관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 11.9.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9. 조정관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관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 11.9.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 11.10.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 11.11.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 11.12. 조정관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11.13. 조정관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12.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 12.1. 노동국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인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노사 양측이 지방 노동국에 신청하면,
- 12.2. 조정인은 7일 이내에 사건 검토를 마치고 늦어도 제8일에는 첫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12.3. 조정인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 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12.4.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 12.5. 조정인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 12.6.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 12.7.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 12.8.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을 한다.
- 12.9.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여 조정인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 12.10.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 12.11. 조정인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인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 12.12.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 12.13.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 12.14.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을 한다.
- 12.15. 조정인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12.16. 조정인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13. Arbitrase(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 13.1. 중재인은 중재인 시험에 합격한 중재인 자격증 보유자로서 전국적으로 관할권이 있다.
- 13.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반드시 노사 양측

간에 먼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 13.3. 양측은 노동부에 등록된 중재인들 중에서 중재인을 지명한다.
- 13.4. 양측이 합의하면 단독 중재(중재인 1명)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부(중재인 3명)를 구성하여 중재한다.
- 13.5. 단독 중재는 민간 단독 판사로, 중재부는 민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간 재판부로 생각하면 된다.
- 13.6. 중재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민사소송 재판처럼 진행된다.
- 13.7. 중재는 노사 양측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 13.8. 노사 양측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 13.9. 첫 공판 혹은 이후 공판에 어느 한 측의 불참에 구애됨이 없이 공판이 진행되며 중재판결문을 내린다.
- 13.10. 중재 판결문의 법적효력은 양측을 구속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다.
- 13.11.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제소를 불허한다.
- 13.1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늦어도 30일 이내에 중재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 13.13. 중재 판결문 집행 시한은 판결일로부터 14일이다.
- 13.14. 패소한 측이 중재 판결 내용을 14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노동법원으로 집행허가를 받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13.15.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대법원에 중재 판결문 취소 청원을 할 수 있다.
 - 13.15.1. 공판에 제출했던 서류가 중재 판결 후에 가짜로 판명되거나 자백한 경우,
 - 13.15.2. 중재 판결 후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측이 숨겨 놓은 서류가 발견된 경우,
 - 13.15.3. 중재 판결이 어느 한 측의 속임수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
 - 13.15.4. 중재부가 월권하여 중재 판결을 내린 경우,
 - 13.15.5. 중재 판결 내용이 현행법규에 반하여 내려진 경우.

(다음 호에 계속)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



지난달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이내찬 한성대교수) 논문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국가의 행복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평균(6.23)을 크게 밑돌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터키(2.90)와 멕시코(2.66) 뿐이었다. 상위 5위 안에 속하는 국가는 ▲덴마크 8.09 ▲오스트레일리아 8.07 ▲노르웨이 7.87 ▲오스트리아 7.76 ▲아이슬란드 7.73 순이었다.

OECD 행복지수는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OECD가 발족되면서 세계경제는 점차 발전단계로 들어섰다. 국민소득이 늘고, 질병이 감소하는 등 회원국들은 회복과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와 때를 같이 해 사람들 마음의 병,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나라마다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국내총생산(GDP)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OECD 행복지수를 만들어 평가의 지표로 삼게 된 것이다. 행복공식 ‘ $P + (5 \times E) + (3 \times H)$ ’

누가 더 행복한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영국의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피트 코언은 1,00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행복이 ▲인

생관, 적응력, 탄력성 등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의 조건(Existence) ▲자존심, 기대, 유머 감각 등 더 높은 수준의 조건(Higher Order Needs) 등 3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가지 요소 가운데 E가 P보다 5배, H는 P보다 3배 더 중요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코언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 방정식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공식은 의외로 간단한 질문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행복지수를 산출하려면 이 세 요소를 평가하는 4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항은 1, 2번이 ‘P’ 요소, 3번이 ‘E’, 4번이 ‘H’ 요소에 해당한다. 질문마다 1부터 10까지의 점수로 답할 수 있고 자신이 얻은 각각의 점수를 공식에 대입하면 지수를 얻을 수 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더 행복하다.

(1) 당신은 얼마나 사교적이고, 정력적이며, 유연하고, 변화에 열려 있습니까?

(2) 당신은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 움츠러들었다가도 빨리 회복할 수 있으며,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3) 건강, 재정 상태, 안전, 선택의 자유, 공동체 의식 등과 관련해 당신은 기본적인 생활이 충족되고 있습니까?

(4) 당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하며, 목적의식을 가진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들이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으라 △친밀한 소수가 곁도는 다수보다 낫다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과거나 미래에 살지 말라 △운동하고 휴식하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중시양그룹, 北투자 430억원 날리고 쫓겨난 사연

중국 500대 기업 중 하나로 굴지의 마그네사이트 가공회사인 라오닝(遼寧)성 시양(西洋)그룹이 북한 황해남도 웅진군에 있는 웅진철광에 2억4000만 위안(약 430억 원)을 투자해 철광석 선광(選鑛) 공장을 건설했지만, 투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당하고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양그룹은 이달 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블로그 등에 올린 ‘시양그룹 북한 투자의 악몽’이라는 글에서 “4년여 동안 갖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해 7월 3만여t의 철광석 분광(粉鑛)을 생산하는 데 성공한 직후, 북측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시양그룹은 지난해 10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북한 조선합영위원회 주선으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으며, 올 3월 현장에 남아 있던 10명의 직원마저 북한 무장경찰과 보안요원에 의해 추방당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댓글에서 “북한이 금강산지구의 현대그룹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직원을 추방한 것을 연상케 한다”고 썼다.

시양그룹이 대북 투자를 결정한 것은 2006년 10월이었다. 철 함유량이 14%에 불과해 제철소 공급이 어려운 이곳의 철광석을 가공해 함유량 60% 이상의 고급품으로 만드는 선광 공장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영봉연합회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 시양그룹이 설비와 자금을 대고, 북한 측은 토지와 광산을 현물로 출자해 각각 75%와 25%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무한 데다, 계약 당시와 달리 북한이 2008년 자원세를 25%로 대폭 인상하자 2009년 북한에 기존 투자금을 포기하고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당초 계약대로 조건을 이행한다’는 53호 문건을 내밀며 시양그룹을 붙잡았다.

문제는 시양그룹이 지난해 4월 공장 건설을 완료

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3개월 여에 걸친 조업 끝에 철 함유량이 67%에 이르는 고급 분광 3만t가량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자, 북측 태도가 돌변했다. 북측은 지난해 9월 ▲북·중 근로자 동일 임금 ▲토지 임대료와 공업용수 사용료, 자원세 부담 ▲오·폐수 배출 금지 등 16개 항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시양그룹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파기했다. 시양그룹은 폭로 글에서 “중국 기술자 없이 북한 근로자만으로도 분광을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당초 북측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까지 떠안기면서 우리를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시양그룹은 생산시설 보호를 위해 100여 명의 직원 중 10명을 현지에 남겼지만, 북측은 올 들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압박하다 이들까지 모두 추방했다.

시양그룹은 기반시설과 공장 건설 등에 투자한 2억4000만 위안 외에 합작 파트너인 영봉연합회사 책임자인 이성규에게 합영회사 설립 수속비, 집대비,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달러(약 9억 원)를 뜯겼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미국산 허머 지프차 구입비 8만 달러’도 들어 있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에 올 때는 바이주(白酒)와 맥주를 마시며 종일 취해 있었고, 밤에 호텔방에 접대부를 넣어주지 않는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북한 대표단의 호텔비와 식비, 교통비, 술값, 담뱃값 외에 안마비와 성매매 비용, 노트북·휴대폰 같은 귀국 선물비용도 모두 부담시켰다고 한다. 시양그룹은 글 말미에서 “북한 투자는 한바탕 악몽이었다. 지난 4년간 북한을 접촉하면서 그들이 사기꾼이자 강도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게 됐다”고 썼다.

시양그룹은 마그네사이트 가공, 비료, 철강 등에 걸쳐 2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라오닝성의 대기업으로 2009년 기준 매출 규모는 190억 위안(약 3조 4000억 원)이다. 창업주인 저우푸런(周福仁·61) 회장은 중국 500대 부호리스트에 올라 있다. ●●

서로 돕는 한인사회 · 서로 믿는 한인사회 · 발전 하는 한인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2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1	한인회 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2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UTAMA	2012	10,000
3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2	10,000
4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송 창 근	KMK GROUP	2012	9,980
5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2	5,000
6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CAMTEX	2012	5,000
7	한인회 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2012	5,000
8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ROYAL SUMATRA	2012	5,000
9	한인회 부회장	조 용 우	외한은행	2012	5,000
10	상공회의소 부회장	권 희 정	PT. SAMICK INDONESIA	2012	3,000
11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두 련	PT. MIWON	2012	3,000
12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송 정	UNICON INDO MESIN	2012	2,995
13	상공회의소 부회장	김 우 진	PT. SAMINDO ELECTRONICS	2012	3,000
14	상공회의소 부회장	박 병 용	PT. PATRA SK	2012	3,000
15	상공회의소 부회장	배 형 석	PT. NANTOY RESOURCES	11/12	6,000
16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세 호	DUMI GLOBAL	2012	3,000
17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완 주	PAN BROTHERS TBK	2012	3,000
18	상공회의소 부회장	최 병 우	ANEKA PANEL INDONESIA	2012	3,000
19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이 주 한	ROYAL SUMATRA	11/12	2,000
20	자문 위원	김 영 만	KIPCO CO. LTD	2012	1,000
21	자문 위원	박 현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2	1,000
22	자문 위원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11/12	2,000
23	자문 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2	1,000
24	자문 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2	1,000
25	자문 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2	1,000
26	이 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2	1,000
27	이 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2	1,000
28	이 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2	1,000
29	이 사	김 경 국	NES	2012	1,000
30	이 사	김 광 현	ASOKA	2012	1,000
31	이 사	김 달 수	KIDECO JAYA AGUNG	10~12	3,000
32	이 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2	1,000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33	이 사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2	1,000
34	이 사	김 상 태	SMS GROUP	2012	1,000
35	이 사	김 성 국	PT. PERTA SAMTAN GAS	2012	1,000
36	이 사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2	1,000
37	이 사	김 원 관	PT. GF INDONESIA	2012	980
38	이 사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2	1,000
39	이 사	남 상 달	PT. PARKLAND INDONESIA	2012	1,000
40	이 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2	1,000
41	이 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2	1,000
42	이 사	박 영 수	PT. BENUA ASIA VISION	10~12	3,000
43	이 사	서 영 율	PT. PRATAMA ABADI	2012	1,000
44	이 사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2	1,000
45	이 사	송 판 원	PT. KORYEPOLIMER	2012	1,000
46	이 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2	1,000
47	이 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2	1,000
48	이 사	유 주 완	PT. FEEL BUY INDONESIA	2012	1,000
49	이 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2	1,000
50	이 사	이 상 일	PT. U I B	2012	1,000
51	이 사	이 석 태	PT. U F U	2012	1,000
52	이 사	이 승 민	Y S M & PARTNERS	2012	1,000
53	이 사	이 종 역	K A L	2012	1,000
54	이 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2	1,000
55	이 사	이 철 훈	PT. INDOBOX UTAMA	2012	1,000
56	이 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2	1,000
57	이 사	정 주 성	PT. DEASUNG HI-TECH	2012	1,000
58	이 사	조 호 신	SONERGY	2012	1,000
59	이 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INONESIA	2012	1,000
60	이 사	하 연 수	PT. SEOLIN NIAGATAMA	2012	1,000
61	이 사	현 정 규	MEKAR SAMMI JAYA	2012	1,000
62	이 사	홍 기 호	PT. AURORA INT'L CO.	2012	1,000
63	이 사	홍 종 서	PT. DONGEN CHEMICAL	2012	1,000
T O T A L				155,955	

ISO 인증

품질 환경 안전보건

문의 573-1576

 **KMAQA**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긴급전화

경찰(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 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0 6880
발리한인회	0361	769 124
브카시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한인회	0298	522 296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7782	886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 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 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23	0807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0	5979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65	3077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 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1-3951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s@yahoo.co.kr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델라	470 4280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낙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항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끌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평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또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22	72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또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또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프라임투어 (한국어)	0857	1009	3479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26 1326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썸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집

레저게스트하우스(땅그랑)	0811 143437
썬터하숙	726 8775
일박이일하숙집	424 0953
교민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세명하숙(BL. M)	0856 9226 9933
Full House	0818 901 609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뽀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학원	7883-5202
토마토미술	720 5194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한인예총(회장 한상재)0811188612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자문화원(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한상재)	(0811 188 612)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5 9717 450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온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 하우스	754 100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SIS (NUSADUA)	770 256
A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동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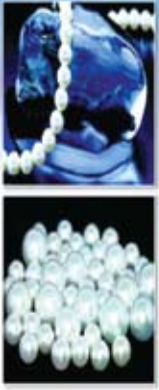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이용안내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KORINDO Plants the Green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칼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로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